인천 시정 모니터링 좌담회
종합 보고서

2017년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

요 약

Ⅰ.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천시정에 대한 인지, 이해, 욕구, 만족수준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현 시정 사업 및 방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천 시정의 주요 사업추진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성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2. 조사설계

1) 조사 방법: 집단심층토의(Focus Group Interview)

2) 조사 대상: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

3) 그룹 구성: 매차 5그룹(그룹별 6~8명)

1그룹: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2그룹: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3그룹: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4그룹: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5그룹: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4) 주요 조사 내용: 매 차수별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

1차: 경제, 재정, 문화관광체육, 인천가치재창조(행정/공공서비스) 분야

2차: 보건복지, 경제산업(일자리), 교육,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3차: 건설교통, 도시계획, 환경녹지, 재난안전(소방) 분야

Ⅱ. 조사결과 분석

1) 최근 인천 지역 주요 관심/이슈 인식

○ 주로 부정적 분위기와 관심/이슈를 언급하는 가운데 인천시의 심각한 부채 및 재정난, 구도심의 낙후로 인한 슬럼화 현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도시 이미지, 도시개발에서 오는 어수선한 분위기,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을 주로 언급함

○ 한편 긍정적인 요소로는 교통여건 개선, 도시개발을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음. 교통여건 개선으로는 접근성이 강화되었으며, 신도시 및 원도심 개발로 지역상권의 활발, 정주여건의 개선, 관광·문화산업 개발 분위기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언급함

2) 인천시 분야별 주요 시정사업 평가

1. 경제산업 분야

○ 인지수준으로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외 사업의 인지 정도는 전반적으로 미약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지 유치 및 인천파라다이스시티 개장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남

○ 인천 경제발전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지 유치를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천파라다이스시티 역시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확대 개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인천만의 특화 산업 개발에 중점적인 역량 투입과 관련 사업 진행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이 주로 언급됨

2. 재정건전화 분야

○ 인천시 부채감축 노력에 대해 시정을 잘해 부채를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 확대로 감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부채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개선사항으로는 적극적인 부채감축 방안 제시, 부채감축 노력에 대한 근거 있는 홍보의 적극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감축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3. 문화관광체육 분야

○ 대형국제스포츠 유치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애인섬 만들기 프로젝트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문화관광체육 시설 개발 사업 진행시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캐릭터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4. 인천가치재창조 분야

○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관련 대부분 인지도가 낮으며, 관심정도 역시 높지 않음. 사업별 우선순위로는 다양한 홍보가 전제된 애인(愛仁)페스티벌을 가장 많이 언급함

○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사업 진행시에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콘텐츠 및 테마를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명칭 또한 직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남

5. 보건복지 분야

○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 관심도는 높은 경향이 나타남. 사업의 우선순위로는 도시규모 대비 응급센터 부족으로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함

○ 개선사항으로는 복지 지원의 조건 완화와 대상자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복지 정책의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 우수

하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6.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을 뿐,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한편, 향후 일자리 분야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향이지만 현재로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시급하며 우선순위로 돼야 한다고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일자리 지원사업보다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천을 대표할만한 기업의 유치가 용이하도록 기업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노인계층의 일자리 다양화와 함께 중년층 등에 대한 지원정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7. 교육 분야

○ 대부분의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과 인천교육자원 활용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함

○ 개선사항으로는 인천지역에 낙후된 교육시설이 많은 만큼, 기존 내/외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8.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 여성/아동 안심 인천 구축사업 및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과 보육인프라 확대 및 안심인천 구축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우선순위로는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이 높게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주부들의 현실에 입각한 단기/숏타임 일자리가 많아지고 주부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이나 지원비 지원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9. 건설교통 분야

○ 인천 2호선 개통과 같은 철도연장사업과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인천 3호선 사업, 버스도로 확장, 강화도 진출입 도로 확장, 광역버스/급행버스 개편 및 개설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10. 도시계획 분야

○ 원도심 부활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가 높으며, 개항장 일대 글로벌 도시 개발이 인천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도시 개발 사업 진행시 현 주민과의 마찰이나 이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주제가 있는 지역 도심 재생 개발과 함께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등)이 담보되

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신도심과 원도심이 분열되는 느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11. 환경녹지 분야

○ 전반적으로 굴포천 사업 및 공원면적 확대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청계천 벤치마킹을 통한 굴포천 복원사업과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공원면적 확대사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녹색종주길의 제주도 올레길과 같은 구간별 테마 마련, 친환경 지원 정책 강화(전기차 지원, 따릉이 등), 갯벌 유지 사업, 공장지대 대기오염과 관련된 규제 및 관리 강화 등의 의견이 나타남

12. 재난안전(소방) 분야

○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실제 시민이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신도시 이외 구도심의 소방안전 시설 강화, CCTV의 질/환경 개선과 함께 후미진 곳의 확대 등의 의견과 함께 가로등 확충 및 밝기 개선, 적정수준의 재난문자 발송, 안전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변 정비, 항구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폭우 및 수해 대비를 위한 원도심 상하수도 점검 등의 의견이 나타남

Ⅲ. 요약 및 결론

1. 현 인천 시정 사업 인지 및 관심도

○ 인천 시정 사업 중 건설교통, 도시계획, 재정건전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인지도 및 관심도가 높음. 환경녹지, 문화관광체육,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는 인지도 대비 관심도가 높아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보건복지, 재난안전, 여성가족, 교육 분야 등의 사업은 사업의 성과 대비 인지수준이 낮은 만큼, 사업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2. 현 인천 시정 사업 중요도 및 우선순위

○ 시정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로는 건설교통 분야(철도연장 및 버스노선 개편)와 도시계획 분야(원도심 개발, 도시재생사업)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분야와 재정건전화, 재난안전 분야 역시 중요하면서도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타남. 한편, 교육, 문화관광체육, 경제산업, 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소통정책, 환경녹지,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현 인천 시정 사업 제안 사항

○ 경제산업 분야

- 인천만의 특화 산업 개발에 중점 역량 투입
- 관련 사업 진행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을 제안함

○ 재정건전화 분야

- 예산낭비 시정 축소
- 시 재정 마련 사업 개발 및 적극적 시행 등을 제안함

○ 문화관광체육 분야

- 개발시설 주변 인프라 구축
- 인천 콘텐츠/캐릭터 개발
- 주변 문화관광코스 연계 등을 제안함

○ 인천가치재창조 분야

- 인천가치재창조 의미에 걸맞은 사업 개발
- 인천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 및 테마 개발 등을 제안함

○ 보건복지 분야

- 미혼모, 편부모, 소년소녀가장 복지 지원 강화
- 신규 복지지원 홍보 강화, SNS 및 문자 발송
- 노인 계층 예방접종 연령 완화 등을 제안함

○ 일자리 분야

- 인천 대표 해외기업 및 공기업 유치/지원 강화
- 노인계층 관광자원, 전통시장 일자리 활성화
- 제조업 탈피, IT 및 예술분야 일자리 개발
- 중년층, 조기 퇴직 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안함

○ 교육 분야

- 인천 특화 교육시설 유치
- 어린이 영재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 지역 유사 학교 및 활동 교류 강화 등을 제안함

○ 여성가족 분야

- 경력단절녀, 주부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단기/숏타임 일자리 확대
- 경력단절녀, 주부를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 보육교사 체계적 교육/심리 평가 등을 제안함

○ 건설교통 분야

- 인천 3호선 사업
- 버스도로 확장 사업
- 자전거도로 확대 사업
- 광역버스 노선 개편(잔여 좌석 표시)
- 급행버스 노선 개설 등을 제안함

○ 도시계획 분야

- 테마가 있는 도심재생 개발
- 젊은층 유입이 가능한 도시재생 개발
- 신도시와 원도심의 분열된 이미지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함

○ 환경녹지 분야

- 녹색종주길을 올레길처럼 구간별 테마 마련
- 친환경 시정 지원정책(전기차 지원, 따릉이 등)
- 매립개발이 아닌 갯벌 유지 사업도 필요함
- 공장지대 대기오염 관련 규제, 관리 강화 필요 등을 제안함

○ 재난안전 분야

- 가로등 확충/밝기 강화, 비상버튼 설치 사업
- 재난 문자의 적정한 발송
- 낙후지역 환경 정비(안전한 이미지 확보)
- 항구 및 선박의 안전 점검
- 원도심 상하수도 점검 등을 제안함

4. 현 인천 시정 사업 종합 제언

○ 장기적인 인천의 전반적 이미지 제고 및 중/단기 과제의 선별적 진행 계획 마련

○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후속 점검 및 마무리 노력

○ 사업 내용의 구체화/현실화, 인천과의 연계성 및 특성화와 차기 시정으로의 연속성 담보

○ 가시적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정 홍보 방안 개발과 이슈메이커 활동 필요

목 차

제 1장 조사 개요 ····· 03
1. 조사배경 및 목적 ····· 04
2. 조사 설계 ····· 04
3. 주요 조사 내용 ····· 05
4. 참석자 Profile - 전체 참석자 특성 ····· 06

제 2장 조사 결과 분석 ····· 07
1. 최근 인천 지역 주요 관심/이슈 인식 ····· 08
2. 현 인천시 주요 시정 사업 전반 평가 ····· 09
3. 현 인천시 분야별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12
   (1) '경제산업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12
   (2) '재정건전화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16
   (3)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18
   (4) '인천가치재창조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22
   (5) '보건복지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25
   (6)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29
   (7) '교육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33
   (8)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38
   (9) '건설교통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42
   (10) '도시계획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45
   (11) '환경녹지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48
   (12) '재난안전(소방)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 52
4. 현 인천 시정 운영에 바라는 점 ····· 56

제 3장 전체 요약 및 결론 ····· 59
1. 현 인천 시정 사업 인지 및 관심도 평가 ····· 60
2. 현 인천 시정 사업 중요 및 우선순위 평가 ····· 61
3. 현 인천 시정 사업 개선 및 제안 사항 ····· 62
4. 현 인천 시정 사업 향후 진행 방향 종합 제언 ····· 64

● 부록 : 각 차수별 참석자 Profile
● 부록 : 각 차수별 좌담회 가이드라인

제 1 장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조사 개요

Ⅰ. 조사배경 및 목적

본 조사는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천 시정에 대한 인지, 이해, 욕구, 만족수준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현 시정 사업 및 방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천 시정의 주요 사업추진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성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됨.

Ⅱ. 조사 설계

1) 조사 방법 : 집단심층토의 (Focus Group Interview)

2) 조사 대상 :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

3) 그룹 구성 : 매차 5그룹 (그룹별 6~8명) X 3차 진행 = 총 120명

그룹	그룹 특성 (차수별 동일)	그룹당 인원
1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6~8명 X 3차
2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6~8명 X 3차
3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6~8명 X 3차
4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6~8명 X 3차
5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6~8명 X 3차

4) 진행 일정 : 1차(경제산업, 재정, 문화체육관광, 행정/공공 분야) – 2017년 6월 13 ~ 16일
2차(보건복지, 일자리, 교육, 여성가족 분야) – 2017년 7월 18 ~ 21일
3차(건설교통, 도시계획, 환경녹지, 재난안전 분야) – 2017년 8월 23 ~ 30일

5) 대상 모집 : 본사 실사망을 통한 선정 질문지 기반 적격자 모집 및 선발 (Pre-Recruitment)

6) 진행 장소 : 일면경과 자동 녹음 및 녹화시설을 갖춘 본사 FGI Room

7) 토의 진행 : 전문 Moderator에 의한 Group Discussion
- 인천시 주요 시정 현황 보조자료 제시 및 검토 토론

8) 결과 분석 : 기록자(Scripter)의 기록과 녹음/녹화된 내용을 참조하여 질적인 방법으로 토의내용 분석 (Verbatim Analysis)[1)]

1) 참석자의 말을 축약하거나 그대로 인용하여 분석함

Ⅲ. 주요 조사 내용

1) 도입단계(Warming-up Stage)

■ 참석에 따른 감사, 토론의 목적 및 진행 방법 안내, 진행자 소개
■ 참석자 소개 및 RAPPORT[2] 형성을 위한 주제 소개

2) 본단계(Main Stage)

Ⅰ. 인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최근 지역 분위기 및 관심/이슈
- 현 인천 시정 인식 정도

Ⅱ. 각 분야별 시정 인식 및 평가(매 차수별 4개 분야 선정 진행)
- 분야별 관심/이슈
- 시정 인식 정도
- 주요 시정 방향 및 성과 평가

1차 : 경제산업, 재정산업, 문화체육관광산업, 인천가치재창조(행정/공공서비스) 분야
2차 : 보건복지, 경제산업(일자리), 교육,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3차 : 건설교통, 도시계획, 환경녹지, 재난안전(소방) 분야

3) 종결단계(End-of-Session)

■ 추가 질문 및 시정에 바라는 점
■ 감사의 말씀 및 인사

※ 세부적인 좌담회 내용은 별첨 '가이드라인' 참고.

2) 감정적으로 친근함을 느끼는 인간관계

Ⅳ. 참석자 Profile - 전체 참석자 특성

특성 구분		참석인원(명)	비율(%)
전체		**120**	**100.0**
성별	남자	48	40.0
	여자	72	60.0
연령별	20대	29	24.2
	30대	31	25.8
	40대	36	30.0
	50대	24	20.0
직업별	미취업/대학생	12	10.0
	자영업	29	24.2
	직장인	55	45.8
	전업주부	24	20.0
결혼여부별	미혼	48	40.0
	기혼	72	60.0
거주지역별	계양구	16	13.3
	남구	17	14.2
	남동구	18	15.0
	동구	3	2.5
	부평구	30	25.0
	서구	21	17.5
	연수구	14	11.7
	중구	1	0.8
거주기간별	5년 미만	13	10.8
	5~10년 미만	10	8.3
	10~15년 미만	18	15.0
	15~20년 미만	12	10.0
	20~25년 미만	17	14.2
	25~30년 미만	24	20.0
	30년 이상	26	21.7

※ 세부적인 참석자 Profile은 별첨 '참석자 Profile' 참고

제 2 장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조사 결과 분석

1 최근 인천 지역 주요 관심/이슈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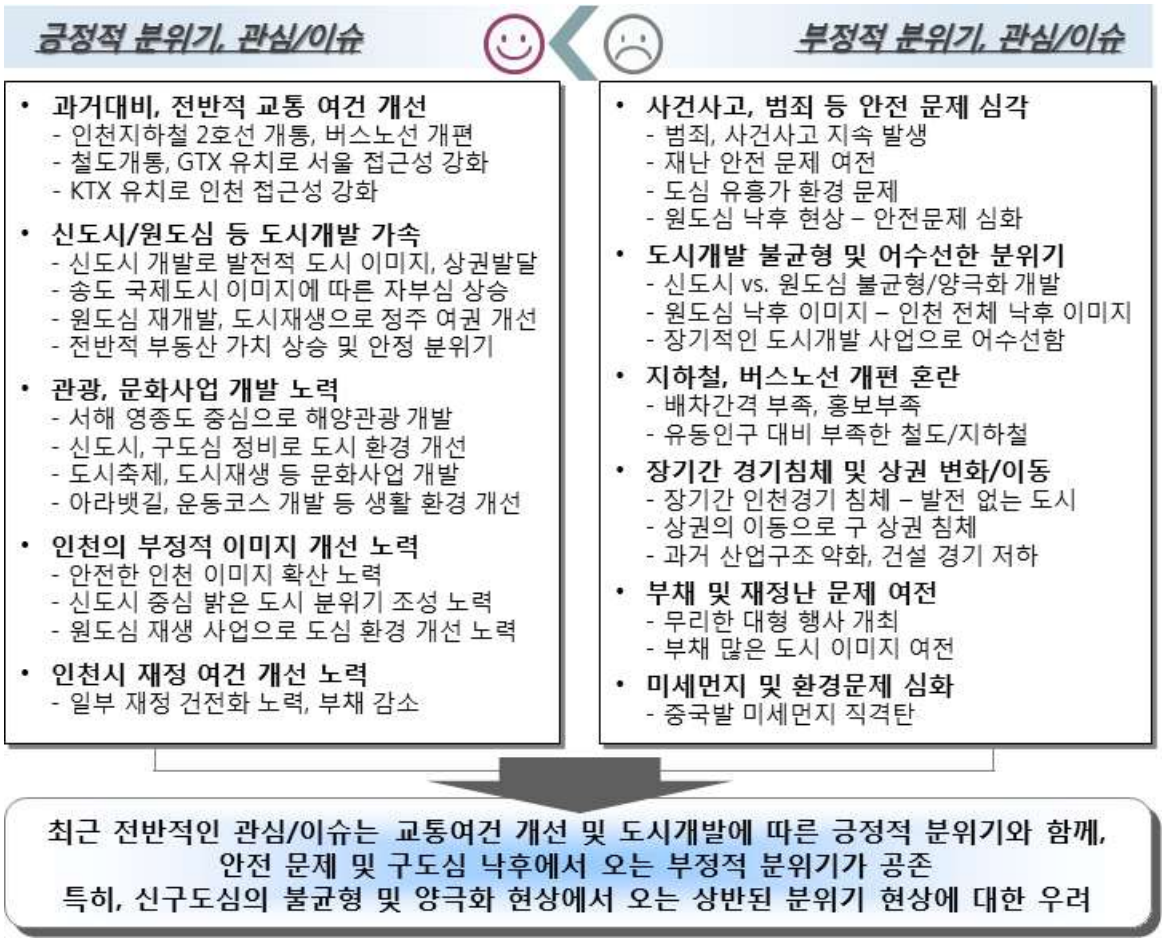
☞ **참석 시민들은 최근 인천 지역 관심/이슈로 교통 여건 개선 및 도시 개발을 통한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음.**

- 특히, 교통 여건 개선으로 내부에서의 서울 접근성과 외부에서의 인천 접근성이 강화되었다는 분위기이며, 신도시 및 원도심 개발로 지역 상권 활발 및 정주여건이 좋았다는 평가와 함께, 관광, 문화사업 개발 분위기 등 또한 긍정적 요소로 꼽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분위기와 관심/이슈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인천시의 부채 및 재정난 문제가 여전하다는 인식과 구도심의 낙후로 인한 슬럼화 현상 및 최근 범죄 사고/사건이 많아 안전하지 못하다는 도시 이미지 심화와 함께, 도시개발에서 오는 어수선한 분위기는 물론, 신도시 vs. 원도심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음.

☞ **한편,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는 졌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있으며,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언급됨.**



2 현 인천시 주요 시정 사업 전반 평가

[보기제시 - 인천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 인천인구300만명 돌파 인천 주권 선포

- 최근 5년간 대도시 인구 지속 감소이나, 인천만 인구 증가로 300만 돌파
- 300만 인천 시민 행복을 위한 실천과제로 민생주권, 교통주권, 문화주권, 환경주권, 해양주권 등 인천주권 선포

● 인천의 가치 재창조

- 구(區)명칭 변경 사업
- 문학산 개방 사업
- 애인(愛仁)페스티벌 개최

● 재정건전화

-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국비 확보, 세출관리 강화

● 현안사업 해결

- 인천발 KTX, GTX 추진중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버스노선 전면 개편
- 10년만에 루원시티(Lu1 City) 공사 착공

● 모두가 행복한 도시

- 맞춤형 고용·복지 확대, 인천형 어린이집 최초 신설
-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결과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천 선정

● 원도심 개발

- 개항장 일대 개발
- 청천2구역, 십정2구역, 송도역세권, 용현·학익구역, 강화읍 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중

● 관광자원 개발

-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 인천생활문화센터, 공연예술연습공간 개관

● 서민경제 활성화

- 특별시·광역시 중, 매년 고용률 지속적 증가
- 청년층 수요와 지역특성 감안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 구축
- 바이오 산업, 뷰티도시 조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소통하는 인천

- 정책소통의 민-관 거버넌스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운영
- 애인(愛仁)토론회 개최

☞ **인천시 300만 인구 돌파 기념 인천주권선포 관련, 전반적으로 문화주권 차원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가 많은 가운데, 인구 대비 도시 기반시설이 아직 많이 미약하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의 경우, 인천의 이미지 및 문화적 가치 전환 노력 차원의 긍정적 평가 분위기가 있으나, 가치재창조 사업으로서 의미가 미약하며 오히려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평가	[300만 돌파 기념 인천주권 선포]	[인천의 가치 재창조]
긍정적 평가	▪ 인천주권 중요 우선순위 평가 문화주권 >> 교통주권 = 민생주권 >> 환경주권 >> 해양주권	▪ 인천의 이미지 전환 노력 ▪ 문화적 가치 측면 발전 효과
부정적 평가	▪ 인구 대비 도시 기반시설 미약 ▪ 포괄적이고 구체성 미약 ▪ 실천성 없는 내부 선포 느낌	▪ 가치 재창조 사업으로서 의미 미약 ▪ 예산 낭비 사업 경향(구명칭 변경) ▪ 전반적인 홍보 부족

☞ **재정 건전화 분야에서 일부 부채 감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인 인천 시정 사업에서 예산 낭비의 이미지가 많다는 의견이며, 부채 감축의 방향으로 지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제기하고 있음.**

☞ **한편, 소통하는 인천 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조용하며 미디어 노출이 부재해 소통 느낌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며, 좀 더 다양한 홍보 방안을 활용하고, SNS 등 양방향 소통 방법을 통해 지역적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평가	[재정 건전화]	[소통하는 인천]
긍정적 평가	▪ 심각한 문제로 시급성 공감 ▪ 부채 감축 노력 긍정	▪ 편지, 문자 알림 수준의 소통
부정적 평가	▪ 일반적 부채 감축 방법 지향 ▪ 지자체 수익 창출 방안 개발 ▪ 재정 확보 방안 구체화 필요	▪ 소극적인 소통 활동 ▪ 적극적 SNS 활동 미미 ▪ 시정의 미디어 노출 부재

☞ **현안 사업 관련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및 GTX, KTX 유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버스노선 관련해서도 지하철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긍정적 평가임. 다만, 버스노선 배차간격과 필요한 노선 폐선이 좀 아쉬우며, 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됨.**

☞ **한편, 모두가 행복한 도시 측면의 평가 결과, 안전도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린이집 신설, 확충보다는 안전관리 및 교사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개선을 우선 제기하고 있음.**

평가	[현안 사업 해결]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긍정적 평가	▪ 도시철도 2호선 개통, GTX, KTX 유치 등 과거 대비 교통 발전 ▪ 지하철 중심 버스노선 개편 긍정	▪ 안전도 조사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인천 이미지 개선 필요 ▪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필요
부정적 평가	▪ 버스노선 배차간격, 폐선 등 불편 ▪ 지하철, 버스노선 지역적 편차 존재 ▪ 조급한 철도개통 안전 문제 발생 ▪ 루원시티 사업 축소	▪ 전반적 안전 체감도 부족 ▪ 안전도 조사 신뢰성 의심 ▪ 어린이집 신설, 확충보다 안전 관리 필요

☞ **신도시 중심의 개발로 인한 도시 불균형 및 양극화 현상 차원에서 낙후된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급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평가이나, 개발 예정지가 많이 축소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제기됨.**

☞ **한편, 인천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만의 특색과 문화적 자립 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관광자원 대비 실질적인 개발이 아직 많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아이템 개발과 효율적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임.**

평가	[원도심 개발]	[관광자원 개발]
긍정적 평가	▪ 양극화 심화 시급한 시행 ▪ 낙후된 원도심 재개발 긍정 ▪ 개항장 개발로 인천 특성 강화	▪ 인천만의 특징 있는 사업 활성화 ▪ 인천의 문화적 자립 효과 ▪ 인천의 해양 자원 활용 ▪ 공연예술연습공간 확대 개관
부정적 평가	▪ 지역 편향적 개발 지양 ▪ 개발 예정지 축소 ▪ 가시적 성과 미미	▪ 애인(愛仁) 명칭 이해력 부족 ▪ 풍부한 관광자원 대비 개발 미미

☞ **인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대기업 유치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청년 자원을 인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방향이나,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직까지 미약하며, 실제 청년 지원 조건의 장벽이 높으며, 일자리의 질에 대한 담보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는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 및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실현 가능성 및 인천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육성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음.**

평가	[서민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긍정적 평가	▪ 대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효과 ▪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 청년 자원 인천 내적 활용 효과	▪ 인천을 대표할 만한 산업 육성 ▪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 다양한 일자리 확대 가능성 ▪ 인천 경제 활성화 효과
부정적 평가	▪ 현실 적용 정책 부족 – 실제 혜택 미미 ▪ 청년정책 지원 조건 장벽 높음 ▪ 일자리 양적 및 질적 수준 미약	▪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 인천과의 연계성 부족 ▪ 구체적 육성 계획안 미비

3 현 인천시 분야별 주요 시정 사업 평가

1. '경제산업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경제산업분야]

1) 투자유치

-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고 수준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 유치 예정
  - 바이오 의약품 공정 개발, 생산 · 연구 관련 교육센터 유치 등
  -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예정

- 국내 첫 '프리미엄 아울렛'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개장
  - 축구장 7배 규모
  - 지하 3층 지상3층의 300여개 매장 구성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2017년 4월 개장***
  - 2017년 호텔, 컨벤션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오픈
  - 향후 스파, 플라자 시설,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 오픈 예정

2) 공공기관 통폐합

- 과거 특별시 · 광역시 중 가장 많은 39개 출자출연기관 보유.
- 예산낭비, 기관간의 갈등, 정책의 비일관성, 정책고객 비용증가, 편의 감소 등 부정적 결과 초래.

→ 효율성 증대,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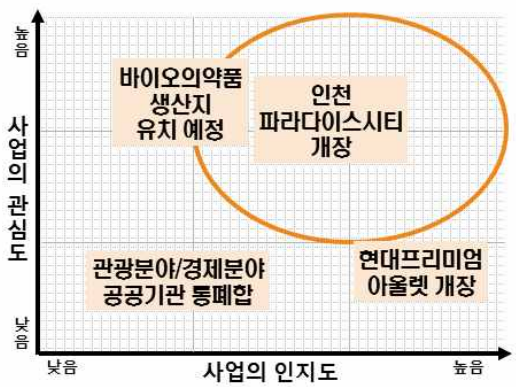
- 관광분야 :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 통합 → 인천관광공사로 흡수 · 통합
- 경제분야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 통합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범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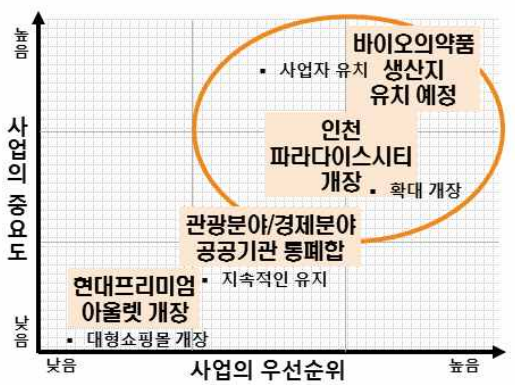
☞ **경제산업 분야 주요 사업 인지 수준을 질문한 결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유치 이외 사업의 경우 인지 정도는 전반적으로 미약하나,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 유치 및 인천파라다이스시티 개장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

☞ **한편, 인천 경제발전을 위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 유치 사업이 사업자 유치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파라다이스시티 역시 명실상부한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확대 개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 유치 사업 관련, 모든 시민들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인구유입과 함께 상권형성,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 측면, 인천을 대표하는 고부가 가치 특성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만, 일부에서는 인천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구체적 성과 의구심과, 기업 유치 어려움으로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함.**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 유치 예정]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인구유입, 상권형성, 고용창출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확대/ 경제 활성화 효과 ▪ 인천 대표 특성화 산업, 고부가 가치 성장 산업 육성 가능성 ▪ 공단 중심 인천 경제에서 공해 없는 깨끗한 산업 도시 이미지 효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 유치 사업은 실제 진행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실행 가능성 우려 불식,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방안, 인천시와의 산업 연계성 등의 측면을 알릴 수 있는 시정 홍보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부정적 평가	▪ 의약품 오폐수 등 환경 측면 문제점 발생 우려 ▪ 대표 기업유치 어려움으로 유명무실화 우려 ▪ 인천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구체적 성과 의구심	

☞ **현대프리엄아울렛 개장의 경우, 인천 경제산업 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주변 상권 약화 우려, 지역적 특화/차별화된 쇼핑몰이 아니며, 다른 지역 대비 뒤늦은 진행 및 접근성 한계로 사업의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다만, 외부 소비 유입을 통한 소비 활성화 및 인천을 대표하는 쇼핑몰로서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개장]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외부 소비 유입 효과(소비 활성화) ▪ 인천 대표 쇼핑몰로서 성장 가능성	**대형 쇼핑몰 개장이라는 차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화/차별화 요소 발굴, 주변 부대시설/ 인프라 구축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부정적 평가	▪ 거대 쇼핑몰 개발로 주변 상권 약화 우려 ▪ 지역적 특성화/차별화 부재 및 뒤늦은 개장으로 효과 낮음 ▪ 접근성 한계, 주변 부대시설 미비로 외부 소비 유입 역부족	

☞ **인천파라다이스시티 개장의 경우, 대부분의 참석자가 인천지역 경제산업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특히, 외국인 유입을 통한 외화 유입의 효과, 인천의 랜드마크로서 영종도 개발을 통한 지역의 대표적인 휴양지로서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긍정적 사업으로 인식**

-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지노 사업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연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음.**

[인천파라다이스시티 개장] 평가

긍정적 평가

- 외화, 자본 유입, 고용창출 등 세수입 효과
- 국제공항 연계를 통한 영종도 개발 효과(라스베가스 벤치마킹)
- 인천의 대표적인 휴양지 개발 효과

부정적 평가

- 카지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홍보 미흡에 따른 사업성 및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의문

[향후 진행 방향 제언]

'인천파라다이스 시티'의 경우, 후속 투자 및 확장 개장 속에서 명실상부 인천의 랜드마크라는 대내외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 출자출연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시민들의 반응은**

-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의 효과**
- **분산되어 있는 행정 시스템의 원스톱 진행 효과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 시정이라는 의견임.**

☞ **그러나, 일부 참석자의 경우, 일자리 축소와 함께 특히, 주변 상권의 소비 감소가 우려되며, 방향성 없는 과도한 통폐합으로 인해 기관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부서 및 일자리 축소의 경우, 기우일수 있다는 의견이며,**
- **전문성의 경우, 오히려 큰 틀에서 통폐합되어야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관광/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폐합] 평가

긍정적 평가

- 원스톱 행정 시스템 개선 효과
- 예산 절감 및 불필요한 인력 감축 효과

부정적 평가

- 일자리 축소, 주변 상권 소비 감소 등 우려
- 과도한 통폐합으로 전문성 저하 우려

[향후 진행 방향 제언]

보다 적극적인 진행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되,

통폐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문성/노하우' 약화 방지 방안 마련

차기 시정에서도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당성 확보

등이 권고됨.

3) 개선 및 추가 사항

☞ **진행 사업 개선 사항으로는**
바이오의약품생산지 유치 사업의 경우, 사업이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서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업체 유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의 경우,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조속한 확대 개장을 통해 인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쇼핑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개발과 접근성 확대로 특성 있는 인천의 대표 쇼핑몰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임.**

☞ **한편, 공공기관 통폐합시 전문성과 노하우가 약화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차기 시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진행 사업 개선 사항]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 유치	▪ 유명무실 되지 않게 큰 틀에서 사업자 유치 ▪ 인천 성장 동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유치 진행 필요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	▪ 후속 투자 및 확대 개장을 통한 인천의 랜드마크로 성장 필요 ▪ 적극적인 홍보 필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	▪ 인천만의 특성화된 쇼핑몰로 개선 ▪ 주변 개발과 접근성 확대
공공기관 통폐합	▪ 통폐합 시 전문성/노하우 약화 지양 ▪ 차기 시정에서도 유지 될 수 있는 지속성 확보

[향후 추가 진행 사업]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경제산업 시정 운영시 인천만의 특화 산업 개발에 중점 역량 투입**
- **관련 사업 진행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이 주로 언급됨.

2. '재정건전화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재정건전화분야]

1) 부채감축

-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주의" 단계 통보.
- 아시안게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준공 등으로 재정난 가속화.
-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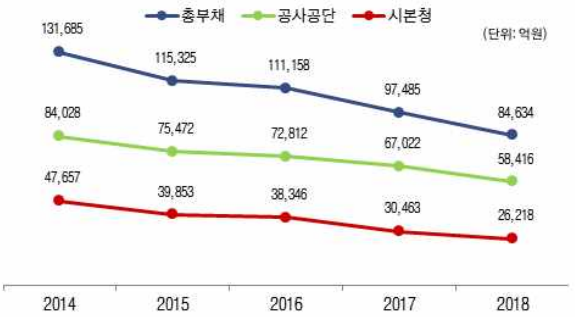
→ 2018년 재정 "정상" 단체 전환을 위한 국비확보, 세출관리 강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

- 총 부채 2조 527억원 감축 달성 채무비율 25% 미만 전환, 채무규모 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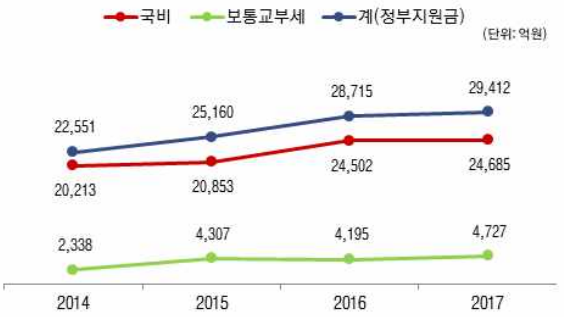
→ 지속적인 정부지원금 확보와 세입확충을 통해 재정 여건 조기 극복 위해 노력 중

- 2017년 정부지원금 2조 9,412억원 확보(2014년 대비 30.4% 증가)
- 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한 부채 1조 330억원 감축(2014년 말 대비)

인천시 부채 현황 및 전망



인천시 정부 지원금 확보 현황



1) 인천시 재정 현황 인식 및 부채 감축 노력 평가

☞ **인천시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참석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부채 감축이 인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측면인 것으로 많은 참석자가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천시 부채 감축 현황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 못하는 실정임.**

☞ **한편, 평소 알고 있는 인천시 부채 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을 잘해 부채를 감축하려는 것이 아닌 시민의 세금 확대로 감축하는 것으로 이해, 또한, 부채 감축 위해 적극적인 시정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인천시 재정 현황 인식]

- 현재 재정자립도 심각성 모두 인식
- 인천 발전 큰 걸림돌로 인식
  - 부채로 인한 사업 소극적
- 부채 감축 노력 미미한 것으로 인식
- 방만한, 무리한 사업이 부채 증가 원인

[인천시 부채 감축 노력 평가]

- 사업 진행하려고 빚지고 세금 걷어서 갚는 악순환
- 시정을 잘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지 않음
- 시민들 세금으로 부채 감축
- 부채로 인해 사업 소극화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현재 주요한 부채감축을 위한 시정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일부 노력하는 것은 보이나 눈에 띄는 수준이 아니며, 임시방편식 감축 느낌이라는 평가가 있음.

☞ 특히, 정부지원금 및 자산 매각에 의존한 부채 감축은 차선이며, 내부 자구책으로 사업비 절감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기업 투자유치, 기존 사업 활용 및 외부 자본 유입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 육성 등 자구책으로서 내부 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재정 건전화 사업] 평가		
정부 지원금 확보	긍정적 평가	▪ 국비를 통한 부채 감축은 차선으로 선택 (자구책이 우선)
	부정적 평가	▪ 인천시 이미지 하락 ▪ 무한정 확보 불가능 - 다른 대책 필요
자산 매각	긍정적 평가	▪ 자산 매각은 차선책 ▪ 묶여있는, 쓸데없는 자산은 기업 투자를 위해 매각 필요
	부정적 평가	▪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산 매각 부정적 - 소액 감축 수준 ▪ 무분별한 매각 지양
사업비 절감	긍정적 평가	▪ 인천시 자구책으로 사업비 절감이 우선 필요 ▪ 방만한 사업 축소 내실 있는 사업 전개
	부정적 평가	▪ 해야 할 사업 못하고 소극적인 사업 전개

[향후 진행 방향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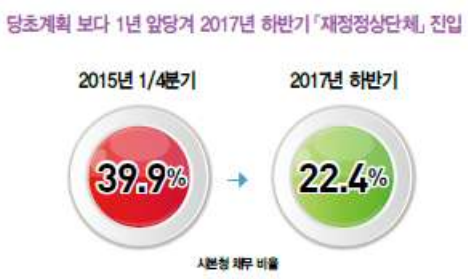
대부분 시민들이 인천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 시급한 해결과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 '부채 감축' 방안 제시 및 시정의 '부채 감축' 노력에 대한 근거 있는 홍보 적극화 필요하며,

일반적인 부채 감축 방법을 지양하고 지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감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또한, 자산매각, 정부지원금, 시민 세입 의존 보다 '기존 사업의 효율적 진행으로 절감하는 노력'을 우선시 할 것을 권고하며,

더불어, 부채로 인해 시정 사업 전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시 재정 마련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 진행이 요구됨.



3.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문화관광체육분야]

1) 대형국제스포츠 유치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 개최한 아시안게임
  - 2조원 들여 13조원 생산유발효과
  - → '저비용 · 고효율 대회' 로 평가
- *FIFA U-20월드컵대회 개최*
  - 대회장소(인천,대전,천안,제주,전주,수원)
  - 인천축구전용경기장(숭의운동장)
- *2015 프레지던츠컵 개최 (The Presidents Cup 2015)*
  -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연합팀간 대결로 '골프월드컵' 으로 불림
  - 아시아 최초 프레지던츠컵 개최

2) 문화가 숨쉬는 도시 조성 사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0년 개관예정*
  -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세계문자박물관 2020년 개관 예정
  - 건립비 약 1,000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 인천 월미도에 해양박물관을 건립함으로 인천, 수도권 학생들의 현장 ·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송월동 동화마을'*
  - 구도심 환경개선과 함께 지속적 성장 동력 구축
  - 주민참여 및 주민 주도 등을 통해 새로운 마을공동체 형성 등 긍정적 효과
-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
  - 개항장 거리를 중심으로 아트플랫폼, 쇼핑플랫폼, 푸드플랫폼 구간을 잇는 복합문화벨트 조성
  - 시립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 예술공원 등

3)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접근성, 정주여건, 주민소득, 관광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27개 과제(47개 사업)에 대한 중 · 단기 계획 추진*
  - 접근성 개선: 백령발 아침운행 여객선 재개, 잠진~무의 · 강화~석모 연도교 건설 등
  - 정주여건 개선: 매력 있는 섬 만들기 특성화 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등
  - 주민소득 개선: 로컬푸드 개발, 어촌마을 소득기반 조성 등
  - 관광여건 개선: 삼산 온천체험시설 개장,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등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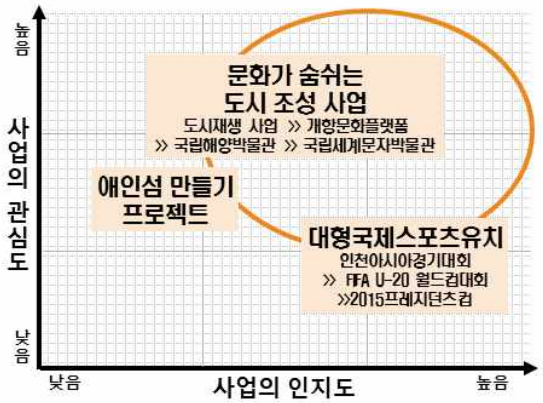
☞ **관련 분야 인천시 주요 사업 제시 후, 인지 수준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 대형국제스포츠 유치에 대한 인지가 높으나,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및 애인섬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는 다소 낮은 편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 및 애인섬 만들기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참석자에게서 관심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 **한편, 분야 사업의 우선순위로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애인섬 만들기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주력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더불어, 문화가 숨쉬는 도시조성 사업의 경우, 주변 지역 연계 개발 및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대형국제스포츠 유치와 관련 우선순위는 낮으나, 이제는 경기장 활용과 주변 시설 개발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임.**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대형국제스포츠 유치와 관련해 대부분의 참석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상황임.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부채 등 재정난 문제, 제반 서비스 시설 부재, 사후 시설 활용의 부재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임.**

☞ **또한, U-20 월드컵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경기가 개최되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반응임.**
다만, 프레지던츠컵의 경우, 인천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대형국제스포츠 유치] 평가

긍정적 평가

- 경기장 주변 선수촌/아파트촌 등 개발 정리
- 세계에 인천 홍보 효과(프레지던츠컵)
-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천의 이미지 제고 효과

부정적 평가

- 무리한 개최로 부채 등 재정난 심화
- 주변 서비스 부대시설 부재
- 사후 활용성 미흡
- 의미 있는 경기 부족으로 이슈 미미
- 전반적인 홍보 부족(프레지던츠컵)
-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프레지던츠컵)

[향후 진행 방향 제언]

새로운 경기 유치보다는 현재 구축된 인프라의 사후 활용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주변 인프라 시설 개발로 활용성 강화 필요.

또한, 프레지던츠컵 같은 경우, 일회성 유치 보다 '명실상부' 유명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 방안 마련과 홍보 강화가 요구됨.

☞ 문화가 숨쉬는 도시 조성 사업 관련 대부분의 참석자가 제시한 주요 사업에 대해 '인천 특성 반영 및 차별성, 경제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주요 사업 진행시 우선순위를 두고 전개하되, 주변 연계 및 주변 인프라 시설 확보(주차/교통 등)와 인천만의 특색과 상징성이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많음.

[문화가 숨쉬는 도시 조성 사업]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	긍정적 평가	▪ 희소성, 특이함으로 긍정적 ▪ 특성화로 관광유치 효과	인천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다양한 홍보 내용 개발과 활발한 전개로 관심도 유발이 요구됨.
	부정적 평가	▪ 인천과 의미 연계성 약함 ▪ 홍보 미비로 낮은 관심도 우려	
국립 해양 박물관	긍정적 평가	▪ 수도권 근접 해양박물관 의미 ▪ 타도시 대비 퀄리티 있게 건립한다면 효과 예상	타 도시 해양박물관과의 차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대형화/퀄리티 높은 건립 목표가 필요함.
	부정적 평가	▪ 차별화 부재시 큰 효과 없음 ▪ 체험학습장으로서 활용도 미미	
도시 재생 원도심 활성화	긍정적 평가	▪ 주변 관광지와 연계 개발 필요 ▪ 외국인 방문, 촬영지 등 부수 효과 높음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강화와 인프라 시설(주차/교통, 부대시설 등) 구축으로 일회성 방문 극복이 요구됨.
	부정적 평가	▪ 일회성 관광 / 단순함 ▪ 주변 인프라, 부대시설 부족 – 교통/주차 등	
개항 문화 플랫폼 확대	긍정적 평가	▪ 경제활성화 효과 및 문화거리로서 의미 높음 ▪ 인천 이미지 및 지역적 특색 반영 가능	문화플랫폼에 근거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 개발과 함께, 주변 근접성 확대를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이 요구됨.
	부정적 평가	▪ 사업활성화를 위한 특성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 부족 ▪ 근접성 확보 필요	

☞ **대부분의 시민들은 애인섬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감이 높으며, 인천의 해양 도시 특성 반영, 다양한 섬 자원 활용, 관광개발로 지자체 소득 증대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임.**

☞ **다만, 프로젝트 진행시 섬 자원 자연경관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초기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하며, 군사시설 근접으로 사업성이 약한 만큼 이를 극복할 방안 마련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애인(愛仁)' 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촌스러움, 연관성/의미 약함 등)이 전반적으로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인천의 해양 자원 반영으로 인천만의 특성 있는 사업 가능성 ▪ 많은 섬 자원 이용 관광개발로 지자체 소득 증대 ▪ 다양한 해양 콘텐츠와 결합된 개발 필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 공감할 수 있는 조감도를 통한 내·외부 다양한 홍보 활동 인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와 결합된 관광 상품 개발 관광지로서 발생되는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기반으로 전개**
부정적 평가	▪ '애인(愛仁)' 네이밍에 대한 거부감 ▪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 ▪ 군사시설 인접으로 사업성 미미 ▪ 많은 비용 투입 우려	

3) 개선 및 추가 사항

☞ **문화관광체육 분야 사업의 주된 개선 사항 및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문화관광체육 시설 개발 사업 진행시 주변 인프라 구축(편의시설, 교통/주차 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와 캐릭터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임.**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대형국제 스포츠유치	▪ 대형 스포츠 경기 유치 보다 만들어진 자원(경기장) 활용 방안 ▪ 경기장 주변 개발로 활용성 확대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개발 시설 주변 인프라 구축** ▪ **인천의 콘텐츠, 캐릭터 개발** ▪ **주변의 문화관광 코스 연계** 등이 주로 언급됨.
문화가 숨쉬는 도시 조성 사업	▪ 일관된 정책 속에서 지속적인 전개 ▪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 및 제반시설(주차/교통 등) 확보 ▪ 인천 특색과 상징되는 캐릭터 및 콘텐츠 개발 필요	
애인섬 만들기 프로젝트	▪ 관광개발로 부정적 이미지 (바가지요금 등) 지양 ▪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된 관광상품으로 개발	

4. '인천가치재창조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인천가치재창조 분야]

1) 구(區)명칭 변경사업

- 지역의 역사 · 문화적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명 정체성 회복을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 역사 · 문화적 의미가 담긴 명칭으로 정비 · 변경하고 있음

→ *남구의 경우*
'문학구', '제물포구', '수봉구', '미추홀구', '주안구' 등 5개 명칭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미추홀구'로 선정 예정

2) 문학산 개방 사업

- 문학산 일대는 인천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주둔에 따라 시민들 접근이 통제되어 왔음
-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한다는 구상 아래 '문학산 정상 개방'을 지속 추진

→ *2015년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문학산 정상을 일반시민에게 개방*

3) 애인(愛仁)페스티벌

- *인천시 인구 300만명 돌파 기념으로, 인천시 · 군 · 구에서 개별 개최되는 행사를 하나로 연합하여 인천의 상징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
- 애인(愛仁)은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이 사랑을 드린다'는 의미로, 타 시 · 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차별화되고 고유한 명칭
- 인천한류관광콘서트2016,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인천 개항장 컬쳐나잇 행사 및 연계행사, 지원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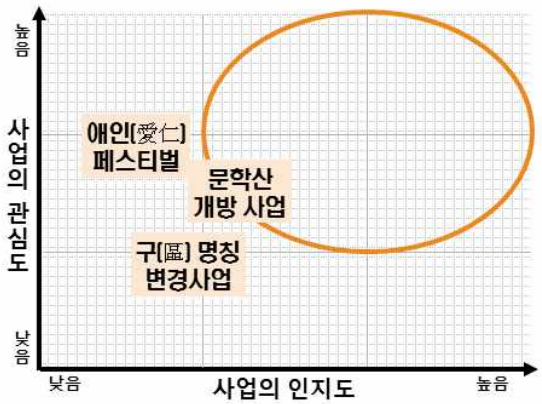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관련 대부분 인지 수준이 낮으며, 관심 정도 역시 높지 않은 수준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애인 페스티벌에 일정 수준 관심을 보이는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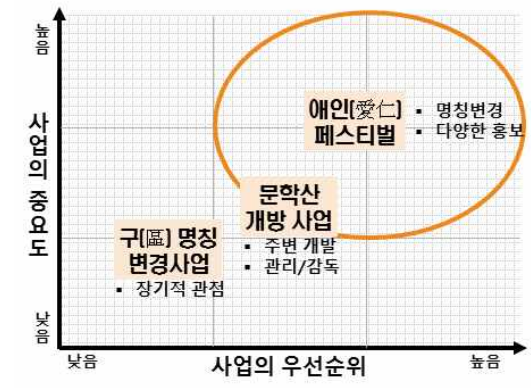
☞ **한편,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로는 다양한 홍보가 전제된 애인페스티벌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문학산 추가 개방 및 주변 개발 사업임.**

☞ **구명칭 변경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진행해도 무방한 사업으로 제기됨.**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구명칭 변경사업 관련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산 낭비, 명칭 변경에 따른 불편 초래 등의 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임.**

☞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방위 개념의 구 명칭의 지역 위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정체성 부여 차원에선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구(區) 명칭 변경사업] 평가

긍정적 평가

- 지역적 정체성 및 의미부여 차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
- 현재 방위 개념 명칭 지역적 불일치 해소 효과
- 지역 이미지 전환 노력 효과

부정적 평가

- 비용/예산 등 재정적 낭비 우려
- 가치재창조 의미 미약
-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초래
- 선정 과정 프로세스 및 홍보 미흡

[향후 진행 방향 제언]

지역정체성 회복 차원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 권고되며,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불편 초래 등의 우려를 제거하는 방안 마련 후, 이를 우선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학산 개방 사업 관련,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우 긍정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을 대표하는 산이 없는 만큼, 인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인천가치재창조사업과 연계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시민에게 돌려주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 것이라는 의견임.**

☞ **또한, 개방시 자연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변 개발시 주차 및 교통 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문학산 개방 사업] 평가

긍정적 평가

- 인천 대표 산으로 개방/개발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역사적 가치로서 개방/개발 효과
- 자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효과
- 산악인 유입 효과

부정적 평가

- 자연 훼손 및 관리 미흡 우려
- 주변 주차/교통난 문제 발생 우려
- 개방에 대한 홍보 미흡

[향후 진행 방향 제언]

'문학산 개방' 사업은 개방 자체에서 오는 의미는 크지 않으나,

인천의 대표적/역사적 명산 개방/주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자연휴식 공간이라는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할 것을 제언함.

☞ **애인(愛仁) 페스티벌 개최의 경우, 대부분 시민들이 '통합된 인천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개최되는 것에 매우 긍정적 평가이며, 특히, 인천 가치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축제, 외국인 관광개발 가능성 등을 긍정적 평가 이유로 언급함.**

☞ **다만, 특색 없이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양하고 인천만의 특별한 콘텐츠/테마가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한편, 축제의 명칭과 관련해 좀 더 직관적일 필요가 있으며, 애인(愛仁) 명칭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부감을 보이고 있음.**

[애인(愛仁) 페스티벌]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인천 가치 창출 및 문화요소 발전 차원에서 특색 보여주는 통합된 축제 ▪ 외부 소비 유입, 외국인 관광 상품 개발 가능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인천의 특색을 보여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만의 특별한 콘텐츠 및 테마 확보,** **인천 대표 축제로서 내·외부로 다양한 홍보 활동 강화,** **보다 직관적인 축제 명칭 개발 등의 개선이 요구됨.**
부정적 평가	▪ 명확한 주제 및 직관성 필요 ▪ 인천만의 특별한 콘텐츠 필요 ▪ 개최 지역 근접성 확보 필요 ▪ 애인(愛仁) 명칭에 대한 거부감	

3) 개선 및 추가 사항

☞ **인천가치재창조 관련 다양한 사업 진행시에는 인천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콘텐츠 및 테마를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명칭 또한 직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한편, 문학산 개방 사업의 경우, 자연 보호 차원의 개발과 관리/감독 및 명소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문화/역사적 의미 반영과 주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구명칭 변경사업은 당장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구명칭 변경 사업	▪ 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진행 ▪ 예산 낭비 지양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인천가치재창조 의미에 걸맞은 사업 개발** ▪ **인천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 및 테마 개발** 등이 주로 언급됨.
문학산 개방 사업	▪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과 관리/감독 필요 ▪ 둘레길 등 휴양, 산책의 명소로 개발 – 주변 인프라 시설 확충 ▪ 문화/역사적 의미 적용 명소 개발	
애인(愛仁) 페스티벌	▪ 인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및 테마 개발로 진행 ▪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 필요 ▪ 다양한 홍보 활동 전재	

5. '보건복지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보건복지 분야]

1)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맞춰,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 발굴·지원 위해
  → ***전담인력 207명 추가 배치***
  (기초생활수급자 2014년 대비 41% 확대)
- ***희망키움통장***
  3년 동안 매달 10만원 저축하고 일정 소득 기준 이상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에 더해 근로장려금 지급

2) 인천형 공감복지 탄생

- ***사랑家꿈사업 :***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민·기업·자원봉사자 등 범시민적 참여속에 추진
  → 2015/16년 2,187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대상
  집수리, 생활 필수물품 지원, 생활수선 서비스 등 제공
-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기초연금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노인 장기요양 지원, 사랑의 안심폰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여가문화사업지원 등
  -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3년 연속 대상 수상

3) 응급의료체계 구축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 1개소(길병원) → 2개소(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 보훈 통합의료서비스 담당할 ***인천보훈병원 건립 예정***
  (2015년 9월 기공, 2018년 개원 예정)
  - 인천시 남구 용현동 450-5 일원
- ***구급차량 1대당 구급대원 3인 탑승 체계 확대,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4) 장애에 편견이 없는 인천

- 장애인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지원 확대, 재가 장애인 행복 프로젝트 '두루美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확대·운영,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인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소
  (2016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인천지역 최초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내 점자도서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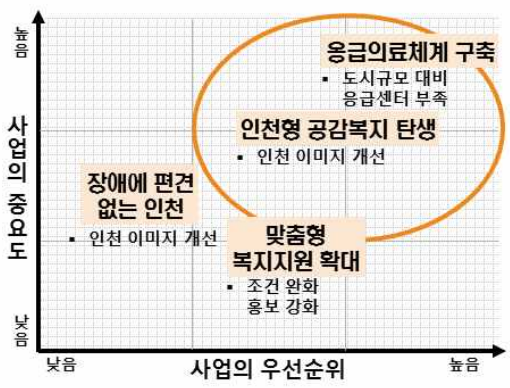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분야 시정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 관심도는 높은 경향이 있음. 특히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 관심도 대비 인지도 향상이 요구됨.**

☞ **한편, 사업의 우선순위로는 도시규모 대비 응급센터 부족의 이유로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하고 있음.**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사업 관련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전담인력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며, 희망키움통장 사업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음.**

☞ **다만, 일부에서 지원 금액이 적은 편이며, 조건이 까다로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음.**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전담인력 확대 긍정 ▪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효과(희망키움통장)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시 대상 조건 완화 및 저축 금액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우선 요구됨.**
부정적 평가	▪ 희망키움통장 지원 금액 미약 ▪ 까다로운 조건으로 접근성 약함 ▪ 홍보 부족 : 지원 사업 내용 비인지	

☞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노인복지 지원사업 차원에서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인 가운데, 인천의 노령인구 증가 측면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되는 점에서 긍정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일부 참석자는 시설 접근성 차원에서 아직 부족하며, 지원 인력의 질적인 차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언급하기도 함.**

[인천형 공감복지 탄생]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노인인구 증가 차원에서 긍정 ▪ 복지 단체가 아닌 지자체 차원 복지 활동 긍정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원 활동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 지원 인력(자원봉사자, 노인 돌봄이)의 일관성(질적 측면)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체계 강화를 권고하며,** **장기적으로 노인여가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과 실행 검토를 제안함.**
부정적 평가	▪ 노인복지시설 접근성 미약 ▪ 지원인력 일관성(질) 유지위한 평가 필요 ▪ 홍보 부족 : 지자체 차원 진행 사실 비인지	

☞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관련 인지 수준이 낮은 반면, 관심 수준은 높은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확대된 점은 환영할 만하나, 인천 지역 인구에 비해 아직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한편,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의 경우, 인천 지역 도로 여건상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신도시 의료시설 부족을 제기하고 있음.**

[응급의료체계 구축] 평가

긍정적 평가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보훈병원 개원 필요 사항
- 인천 도로상황 상 맞춤형 119 출동 서비스 긍정 효과

부정적 평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 편중 해소
- 신도시 의료센터 부족

[향후 진행 방향 제언]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관련 응급의료센터 및 의료시설의 지역 편중 상황이 이해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시스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복지사업 전반적으로 인지 수준이 낮은 가운데, 지역적인 홍보를 통한 알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지역 정서상 장애시설 건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인천 지역이 장애복지 정책이 잘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바람을 제기하기도 함.**

[장애에 편견이 없는 인천] 평가

긍정적 평가

- 장애시설 유치 지역적 공감대 형성
- 장애복지정책의 긍정적 인천이미지 정착 및 확대 효과
- 장애 지원 센터 알림 서비스 긍정

부정적 평가

- 센터, 시설 확충이 아닌 찾아가는 장애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

[향후 진행 방향 제언]

타 지역 대비 인천 장애복지 체계 우수성의 자부심 구축 방안 마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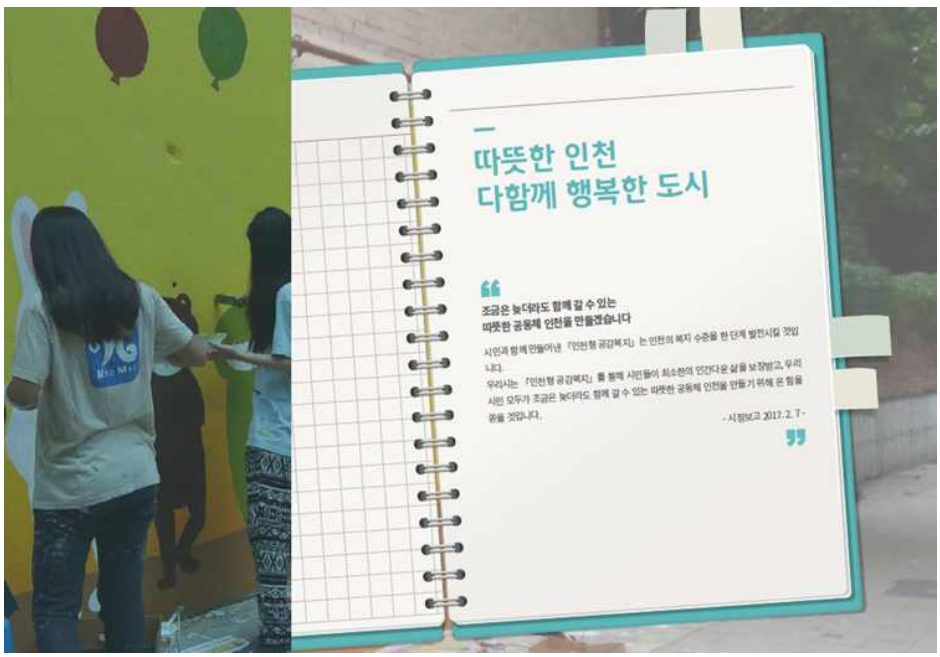
보다 발전된 – 찾아가는 장애복지 서비스로의 확대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권고됨.

3) 개선 및 추가 사항

☞ **향후, 보건복지 분야 사업 개선 사항으로는 복지 지원의 조건 완화와 대상자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복지 정책의 홍보 강화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건복지 정책 관련 인천이 우수하다는 이미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보건복지 분야 추가 진행 사업으로는 복지 대상으로 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미혼모, 편부모 등 대상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음.**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지원 조건 완화, 대상자 확대 ▪ 지원 내용 홍보 강화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미혼모, 편부모, 소년소녀 가장 대상 복지 지원 강화** ▪ **신규 복지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SNS, 문자 발송** ▪ **노인 계층 예방접종 연령 완화** 등이 주로 언급됨.
인천형 공감복지 탄생	▪ 소외 계층 증가로 사업 확대 ▪ 인천 이미지 및 삶의 질 향상	
응급 의료체계 구축	▪ 신도시 병원 부족 - 신설 ▪ 도시규모 대비 응급센터 부족 및 의료진 수준 개선	
장애에 편견이 없는 인천	▪ 장애복지 정책을 통한 인천 이미지 개선	



6.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1) 좋은 일자리 확대

- 2015년 대비 2016년 수출액 증가 (15년:312억 $→16년:358억 $), 전국 유일 두자리 수 수출 증가율 (인천:14.8%),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가율 최고 (9.6%), ***2016년 주요 일자리 지표 전국 최고*** (경제활동 참가율 64.8%, 고용률 61.6%) → 7대 특·광역시 중 1위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 14~15년 연속 우수단체 수상***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 공시하고, 다음 해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일자리 분야의 최고 평가
- '일자리 희망버스' 개통 (2016.08.25.),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2016.07.)

2)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청·사·진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인천지역 미취업 청년 7천명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 지원
  - 자격증 접수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등 구직활동비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60만원 지원
- ***인천 글로벌캠퍼스(Incheon Global Campus) 내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소, 아이디어 살롱 등 구축 예정

3)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어르신들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한 노후 생활 위해 ***노인일자리 매년 확대 → 특히, '실버카페' 인기***
  - 인천실버종합물류㈜설립 – 실버택배 활성화,
  - 카페지브라운(Kaffee G.Braun-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카페라는 뜻) 송림체육관점, 강화복지관점, 용현점 등 개소 (20개소 어르신 바리스타 231명 활동 중)
  - 보건복지부 평가 '공익형 일자리 사업' 3년 연속 대상, '시장형 일자리 사업'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4) 여성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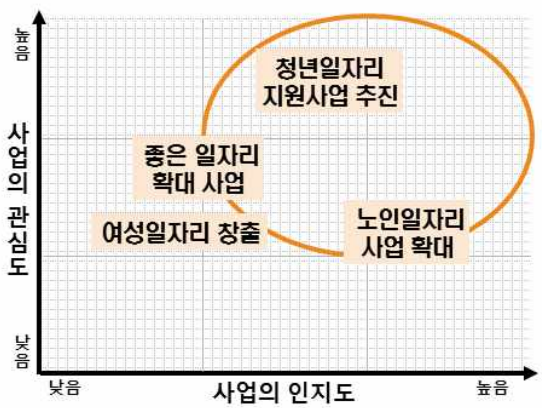
-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구축*** 인천지역 내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와 연계
  - 석·박사 연구원 2명 상시채용하여 여성 경력유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맞춤형 여성일자리 개발 및 보급, 컨설팅 업무 수행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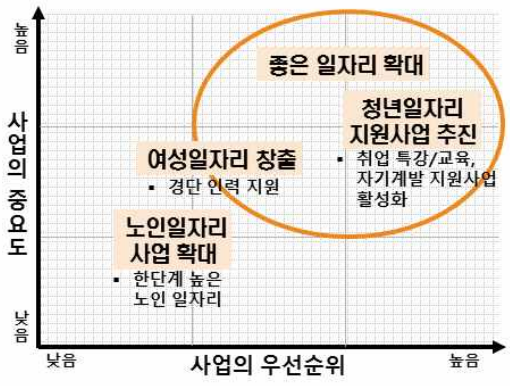
☞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을 뿐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 상황을 보임. 상대적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한편, 향후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단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지원사업 보다 중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현재로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시급하며, 시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인천 지역 일자리 지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많은 가운데, 인천의 일자리 지표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전반적으로 인천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는 점이 약하며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 역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임.**

[좋은 일자리 확대]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일자리 확대 관련 긍정적 뉴스 적극 홍보 필요	**좋은 일자리 확대 관련 지표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로 긍정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며,**
부정적 평가	▪ 일자리 지표의 현실적 거리감 ▪ 지원 정책 실질적 도움 미흡, 지원 일자리 질 향상 필요	**더불어 일자리 지원 사업의 현실적인 도움 및 질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시민들 가운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 인천 지역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만, 지원 조건의 제한성에 대한 아쉬움, 수혜자 선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지역 청년 및 사업장 모두에 홍보가 약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지원 사업 시행 자체 긍정 ▪ 청년일자리 지역 근접성 확대 효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사진'의 경우, 지원 조건 완화와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며,**
부정적 평가	▪ 지원 조건 제한 한계 ▪ 수혜자 선정 정확성 의구심 ▪ 홍보 미흡 : 청년 및 사업장 모두 홍보 필요, 지역 차원 진행 비인지	**보다 많은 청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가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참석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특히, 일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한 단계 높은 교육 지원)도 필요하며,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임.**

☞ **다만, 일부에서는 카페지브라운 같은 경우, 운영에서의 미흡이나, 사업장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평가

긍정적 평가

- 노인일자리 확대 전반 긍정

부정적 평가

- 노인일자리 운영 미흡, 지속성 미약
- 노인일자리 보다 다양화 필요
- 전문적 교육 지원 확대 필요

[향후 진행 방향 제언]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로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가시적 성과가 있는 만큼,

노인 인력의 질적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카페지브라운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 차원에서 관광자원 활용과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 봄직 함.

☞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자체가 긍정적이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단 구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특히, 실제 지원 경험자의 경우,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면서 기회를 제공하려는 모습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인천 지역 내 여성 일자리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우려 등을 제기하기도 함.**

[여성일자리 창출] 평가

긍정적 평가

- 지원 사업 시행 자체 긍정
- 기회 제공 지속성 효과

부정적 평가

- 지역 여성 일자리 제한적
- 현실 조건에 부합하는 일자리 미흡 (단기/숏타임 일자리 등)
- 지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미흡
- 지원 사업의 전반적 홍보 미흡

[향후 진행 방향 제언]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반적으로 성과의 미비함을 고려할 때,

조건에 부합하고 접근이 용이한 단기/숏타임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강화로 많은 여성 인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개선 및 추가 사항

☞ **일자리 분야 진행사업 개선사항으로는**
일자리 지원사업 보다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계층별 지원사업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음.

☞ **한편, 일자리 분야 추가적인 시정 사업으로는**
인천을 대표할만한 기업(해외, 공기업 등) 유치가 용이하도록 기업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노인 계층의 일자리 다양화(관광자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와 함께, 중년층(조기 퇴직 계층)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진행 사업 개선 사항]	
좋은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지원 사업 보다 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에 중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 기초인력 육성에 중점 ▪ 청년 인력의 인천 지역 환원 방안 ▪ 취업 특강/교육, 자기계발 등 직접적인 지원 사업 활성화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의 평생 직업 마련 방향 지원 ▪ 경단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 주부 위한 단기/숏타임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노인 일자리 선택 범위 확대 및 다양한 분야 일자리 마련

[향후 추가 진행 사업]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인천 대표 해외기업 및 공기업 유치 및 지원 강화**
- **일자리 정책 및 지원 사업 다양한 홍보 강화**
- **노인 일자리 다양화**
  - 관광자원 활용,
  - 전통시장 활성화 등
- **제조업 탈피 IT, 예술 분야 일자리 개발**
- **중년층, 조기 퇴직 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이 주로 언급됨.

7. '교육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교육 분야]

1)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2017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 제공 위해 →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 전면 시행***
- 135개교, 80,588명, 예산액 342억원

2)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 이라는 비전 아래에 5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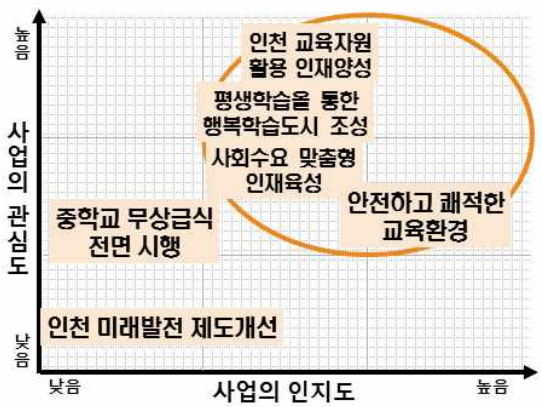
1)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2)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3)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학습도시 조성*	*4) 인천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인재양성*	*5) 인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① 학생 안전 위한 투자 확대 - 초중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 - 어린이 하교길 길동무 지원 사업 등 ②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 - 핵심인재 양성 위한 영재교육기관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① 미래사회 요구하는 인재 양성 -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② 글로컬(Global+Local) 인재 육성 - 인천형 인재육성 산학관 협의체 구성 -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지원 등 ③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기관 설립(유치) - 외국 고등교육기관 유치 - 한예종 인천 유치 추진 - 국립해양과학대학 설립	① 평생교육 추진기반 활성화 - 인천 전역 평생학습 도시화 -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② 학습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학습자 맞춤형 지원센터 설치 - 新중년세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③ 평생교육진흥원 역량 강화 -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발전계획 수립 - 구심체 역할 통한 거버넌스 확대	① 인천 역사·문화 활용 정체성 교육 - 역사문화탐방/교육실시 - 우리지역바로알기 프로그램) ② 지역수요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미래사회에 대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③ 청소년 스포츠 인재양성 - 인천 프로구단 연계 우수 유망주 육성 - 소외계층 자녀 스포츠활동 지원 등 ④ 교육비 부담 완화 장학금 확충 및 지원 - 장학기금 500억원 확충, 장학생 선발 및 지원	① 교육부 학교신설 억제정책 개선 건의 - 교육부에 건의 ②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 개선 건의 - 교육부에 건의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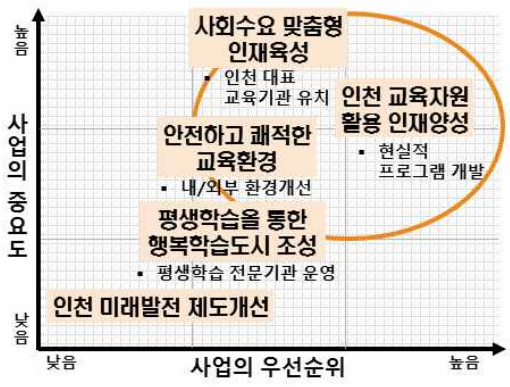
☞ **인천의 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가운데, 교육분야 사업 대부분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과 인천 교육자원 활용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며 교육분야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전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많은 참석자가 이미 시행되는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제야 시행되는 것에 다소 놀라는 상황임.**
전반적으로 늦었지만 시행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일부, 다른 지역대비 늦은 시행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한 고등학교 급식비 상승이 차후에 복지 지원의 어려움으로 작용될까 우려하기도 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늦었지만 시행 자체 긍정적	**늦은 시행인 만큼, 진행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학생 무상급식으로 인한 고등학교 급식비 상승 인식 제거를 위한 사업 시행 홍보 전개를 권고함.**
부정적 평가	▪ 다른 지역대비 늦은 시행 - 대부분 이미 시행 사업으로 인식 ▪ 중학생 무상급식으로 인한 고등학교 급식비 상승 역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 이전에 기본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음.**

☞ **그러나, 내부 시설보다는 교문 등 눈에 보이는 측면만 개선하는 모습이나, 교실 안/밖 교육환경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아직까지 시설이나 지원용품 자체가 많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교육시설 기본 인프라 구축 효과 ▪ 많은 변화 및 시설 개선 노력 긍정	**보여주기식 교육 행정이 아닌 현실적 필요 시설 개선으로 사업 진행 필요** **눈에 보이는 시설만 개선하는 것이 아닌 교실 안/밖의 직접적인 환경시설이나 교육자원 개선, 지원 등**
부정적 평가	▪ 눈에 보이는 시설만 개선하는 보여주기식 환경 행정 ▪ 교실 밖 교육환경 지원 프로그램 시설 열악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의 전문 인재 양성과 현재 부족한 특성화 교육 시설을 해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임.**

☞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성화 교육 정책이 교육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과 연계성이 없는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기관의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적성 개발, 인재 양성 차원에서 중요 ▪ 지역 내 특성화된 교육 시설 부재 해소	**인천의 특성과 연계된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 환경과 시설 및 지원사업의 강화로 한 분야의 특성 있는 교육도시 이미지 발전 강화 방안 마련** **인천하면 떠오르는 인천과 연계된 특화된 교육기관 신설 등**
부정적 평가	▪ 특성화 교육에서 오는 차별 우려 ▪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기관의 실효성, 효과 우려 – 인천에 예술고가 필요한가?	

☞ **전반적으로 30~40대 이상 참석자 집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년층의 미래 준비 차원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으며, 전체 사회 및 지역에서의 조기 퇴직자에 대한 지원 정책 미비점 해소와 평생교육 기관 부족한 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방법/방향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학습도시 조성]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30, 40대의 미래 준비 차원에서 중요 ▪ 조기 퇴직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미비점 해소 ▪ 인천의 평생교육 기관 부족 해소	**평생학습기관의 행정적인 기관 운영 방법/방향에 대한 한계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성과 질적인 내용을 담보한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 평가	▪ 지자체 차원의 운영 방법/방향에 대한 우려/의구심 – 전문기관 의뢰 필요	

☞ **시민들 대부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활용 및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형식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학부모에 의존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편,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과 소외계층 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언급되기도 함.**

[인천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인재양성] 평가

긍정적 평가

- 지역 활용 진로 체험 프로그램 긍정적
-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 긍정적
- 소외계층 자녀 지원 정책을 통한 인천 이미지 개선

부정적 평가

- 홍보 미비로 프로그램 인지 약함
- 진로체험 학부모 의존 강함
- 형식적 체험 프로그램 지양

[향후 진행 방향 제언]

학부모 의존의 형식적 진로 체험,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각 분야 진로 체험이나, 정체성 교육을 현실적으로 직접 체험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참석자들의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의 경우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반면, 구도심의 경우 현재의 교육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임.**

☞ **한편,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 건의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임.**

[인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평가

긍정적 평가

- 신도시 교육시설 확충 필요
  – 한교신설 억제정책 개선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

부정적 평가

- 학교 신설 문제보다, 현재 학교에 대한 개선 운영에 집중 필요

[향후 진행 방향 제언]

지역적 상황에 따른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홍보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도심의 낙후된 학교 시설 개선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 후, 적극적 홍보 전개

3) 개선 및 추가 사항

☞ **교육분야 진행 시정 사업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천 지역에 낙후된 교육 시설이 많은 만큼, 학교 신설 정책보다는 기존 내/외부 교육 시설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교육분야 시정 사업 추가 사항으로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 어린이 특성화 교육기관(영재발굴-검사 등)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학교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사업이 언급됨.**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 기본적인 내/외부 환경 시설 개선 - 시설 및 용품 지원 강화 ▪ 노후 시설 중심 개선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인천에 특화된 인천만의 교육 시설 유치** ▪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 ▪ **어린이 영재개발 교육 기관 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유사 학교 및 활동 교류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주로 언급됨.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유치 ▪ 인천을 대표하는 교육기관 유치 ▪ 특성에서 오는 차별화 지양 ▪ 지역 인재 정착 가능성 확대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학습 도시 조성	▪ 중장년을 위한 평생학습 시설 및 도시 분위기 조성 ▪ 전문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인천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인재양성	▪ 보여주기식, 학부모 의존 사업 지양 ▪ 현실적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업 홍보 강화	
인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학교 신설 정책 보다, 현재 학교 개선 운영 방향에 중점	

8.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1) 여성이 행복한 인천

- ***'인천 여성전문인력 등록'을 통해***
  여성인재 사회참여 지원 위한 기틀 마련 및 릴레이 재능 나눔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개 여건 마련
- ***신인(新仁)여성***3,000명 DB구축 프로젝트로 여성전문인력 신규 발굴
  ※신인(新仁)여성: 인천시에 거주 또는 직장이 있거나 고향, 학교, 사업 등 관계에 따라 인천에 연고나 기여가 있는 전문직 여성인재
-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해
  전국 최초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조성'
  - 가족친화 인증준비기업군 103개소 지정
  - 가족친화국가인증 16년 66개소 → 17년 96개소 → 18년 125개소 목표

2) 보육인프라 확대

- 공보육 인프라 강화 위해 2014년 211개소이던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2016년 329개소로 확충***
- ***인천형 어린이집***
  16년 10개소 시범운영, 17년 50개소, 18년 100개소 확대 예정
  ※인천형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낮춘 영아 안심 보육을 특화한 인천시만의 어린이집 (0세반 1:3→1:2로, 1세반 1:5→1:4)
- ***공보육 서비스 공급률***
  2016년 329개소(14.7%) → 2020년 635개소(28.3%) 확대
- ***공보육 분담률***
  2016년 18,548명 → 2020년 29,722명(38.3%) 확대

3) 출산 친화환경 조성

- ***임신·출산지원***
  임산부 건강관리(17,039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3,753건)
- ***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미숙아의료·난청진단 등 24,106명
- ***인천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사업***
  인식개선캠페인 등 14회 실시

4)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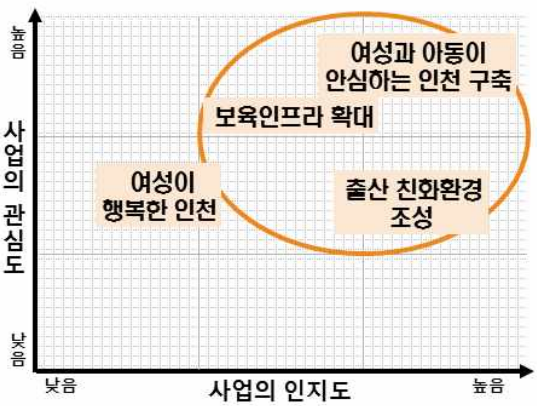
- ***폭력예방 안심드림(Dream) 조성사업***
  -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확대(25개소),
  - 폭력예방 안전 멘토-멘티결연(114명),
  - 초등학생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초등5학년 25,000명),
  - 24시데이트 폭력상담센터 운영(1366센터),
  - 안전취약 마을 환경 개선(2개소 23가구)
- ***아동학대 안심드림(Dream) 조성사업***
  - 우리마을 아동지킴이(읍·면·동 통장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 위촉 운영-3,829명),
  - 2018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3개소→4개소),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통합지원체제 구축,
  -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개소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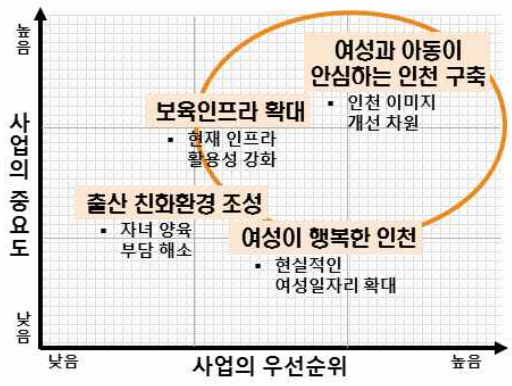
☞ **여성가족 분야에서 여성/아동 안심 인천 구축 사업 및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의 인지도가 높은 가운데, 보육인프라 확대 및 안심 인천 구축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음.**

☞ **한편, 향후,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사업으로는 모든 참석자가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이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여성전문인력 등록 및 신인여성 발굴 사업 인지도 및 관심 수준이 높지 않은 가운데, 단절된 여성 인력의 상황(결혼, 육아 등)에 맞게 현실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또한, 인천 지역 기업문화 개선 차원에서도 가족친화 기업군 조성 사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임.

☞ **다만, 여성 인력 DB의 구체적인 활용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여성 일자리의 질적인 차원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됨.**

[여성이 행복한 인천]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인천 기업 특성상(주6일제 기업 많음) '가족친화 기업군' 형성 필요 ▪ 단절된 여성인력 단기 일자리 지원	**'여성이 행복한 인천' 사업의 경우, 현실성과 활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여성 인력 DB구축의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양과 질적인 부분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알릴 필요가 있음.**
부정적 평가	▪ 인력 DB의 활용성 의구심 ▪ 여성 일자리 확대 대비 질적 향상 미비	

☞ **보육인프라 확충 및 공급률 확대에 대해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인천 지역 보육의 질이나, 어린이 안전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임.**
특히,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음.

☞ **다만, 아직까지 인천의 규모에 비해 확대가 좀 더 필요하며, 규모/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자질 관리 역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 및 실천 방안 고민이 제기되기도 함.**

[보육인프라 확대]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공공형 어린이집 더욱더 확대 필요 ▪ 인천형 어린이집 더욱더 확대 필요	**'보육인프라 확대' 사업은 인프라 구축 확대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모와 시설 확충 보다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관리 측면의 사업 방향 마련이 동시에 전개될 필요가 있음.**
부정적 평가	▪ 인천의 인구 규모 대비 아직까지 미비 ▪ 규모/시설 확충 보다 교사 자질 관리 우선 필요	

☞ **전반적으로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 관련, 최근 사회적 분위기(저출산, 난임, 미숙아 등) 차원에서 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특히, 난임 부부 지원 및 미숙아 의료지원에 대한 공공적 지원에 대해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한편, 현실적으로 출산 지원 서비스의 선택 폭(조건)이나, 인력 수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 되기도 함.**

[출산 친화환경 조성] 평가

긍정적 평가

- 임신, 출산 지원 확대
- 난임 부부, 미숙아 지원 확대

부정적 평가

- 선택의 폭 미약, 까다로운 조건
- 적은 인력, 낮은 서비스 질
- 전반적 홍보 미약

[향후 진행 방향 제언]

'출산 친화환경 조성' 사업은 무엇보다 지원 혜택 조건의 완화(확대)와 함께,

서비스 질과 내용 다양성을 통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부분의 시민들이 관심이 높고 몇몇 사안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인천 지역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현재 인천의 도시 환경(낙후지역, 구도심 분위기) 상황을 보았을 때,
안심드림 조성사업은 체계적으로 확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다만, 사건/사고 발생 후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전담 인력 확충 역시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됨.**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 평가

긍정적 평가

- 인천 이미지 개선 차원 확대 필요
- 전반적인 조성사업 성과 긍정적

부정적 평가

- 사고 발생 후, 보여주기 식 사업 지양
- 안심조성사업 지속적 실행 유지 의구심
- 학부모 의존성 탈피 – 전담 인력 확충

[향후 진행 방향 제언]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 사업은 사건/사고 발생 후,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지속성이 유지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서민 밀착형(귀가 도우미 등) 사업 강화를 권고함.

3) 개선 및 추가 사항

☞ **여성가족 분야에서 추가/개선 사항으로는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나 주부들의 현실에 입각해 단기/숏타임 일자리가 많아지고 주부들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이나 지원비 지원 정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안심 인천 구축 사업이 중요한 만큼, 안심 귀가 서비스와 같은 밀착형 안심 드림 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여성이 행복한 인천	▪ 여성 인력 DB 실제 활용성 강화 방법 마련 ▪ 현실적인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주부의 시간을 활용한 단기/숏타임 일자리 확대** ▪ **경력단절 여성/주부 사업비 지원 사업** ▪ **안심 귀가 서비스 등 밀착형 안심드림 사업** ▪ **보육교사의 질 향상 – 체계적 교육/ 심리 평가 등** 등이 주로 언급됨.
보육 인프라 확대	▪ 인구 규모 대비 확대 필요 ▪ 현재 인프라 활용성 강화 ▪ 규모 확충 대비 교사 자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출산 친화환경 조성	▪ 출산율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양육 부담 해소 방안 ▪ 인천에 특히 많은 젊은 부부 지원 사업 확대 ▪ 지원 혜택 선택의 폭 확대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	▪ 학부모 의존 탈피 – 전담 인력 확충 ▪ 지속 실행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 안전 취약 마을 환경 개선	

9. '건설교통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건설교통 분야]

1) 철도 연장

개통 완료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2016.2.3.)
- 수인선 (2016.2.26.)
- 영종역 (2016.3.26.)
- 인천2호선(2016.7.30.)

개통 예정

- 인천발 KTX (2021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2025년)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026년)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2024년)
- 동서간선철도(2023년)
- 인천2호선 광명 연장
- 청학역 신설

2) 버스노선 전면개편

➢ **다변화된 철도 노선과 연계하여 버스노선 개편**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수인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

➢ **개편효과**

- 노선 중복도 21%개선
- 굴곡도 10.7%개선
- 노선당 운행대수 0.8대 증가
- 평균 배차간격 1.2분 단축
- 이용자 평균 통행시간 9.8분 단축 효과

3)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결정**

- 극심한 지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상실
- 지역단절, 소음, 미세먼지 유발의 원인

→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구간 일반도로화 및 일부 구간 지하화

→ 진출입로 설치, 방음벽 철거 등으로 접근성 및 교통편의 개선

→ 방음벽 제거, 소음·대기오염 등 문제 해결,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 원도심 발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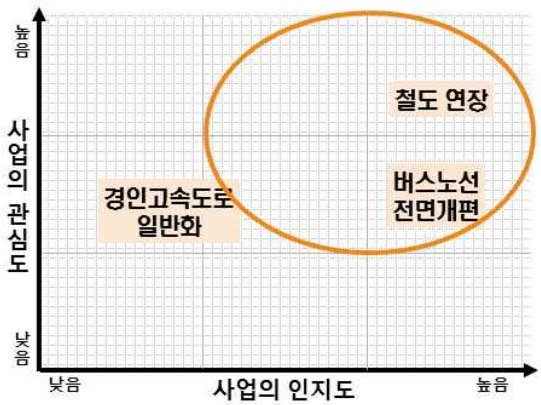
현재 일반화 조감도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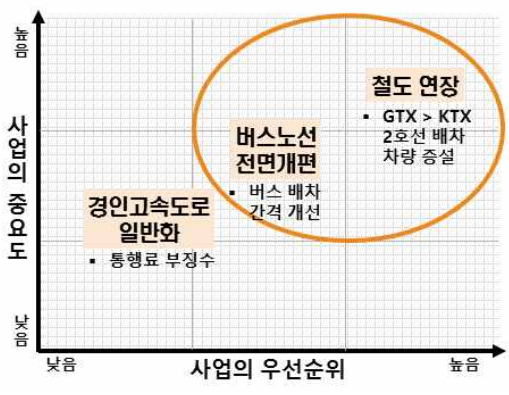
☞ **건설교통 분야 주요 시정 사업 중, 철도 연장(인천2호선 개통 등) 사업과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가 높은 편임.**

☞ **한편,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 GTX 조기 개통 등 철도 연장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다음으로 버스 배차 간격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철도 연장 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도시 교통정비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이며, 특히, 인천 지역 내부 유동성 강화와 내외부 국민들의 진출입 편의를 통한 인천 발전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 다만, 계획대비 뒤늦은 개통이나, 최종적 효과를 위한 마무리 연장 미흡(예: 수인선), 배차간격과 차량 협소 및 역 주변의 부대시설 미흡 등의 아쉬움을 제기함.

☞ 한편, KTX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이나, 비용대비 효과의 극대화 및 지역적 효과 편차 등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철도 연장]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전반적인 도시 교통 정비 효과 ▪ 인천 지역 내부 유동성 강화 효과 ▪ KTX 유치를 통한 지방 진출입 효과	개통 완료 노선에 대한 안전 관리 및 불편사항 (배차간격, 부대시설 미비 등) 완화를 중심으로 개선 작업이 다소 필요하며, GTX를 중심으로 향후 개통 예정 노선의 경우, 향후 개통 일정 단축을 통한 긍정적 평가 분위기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 평가	▪ 수인선 연결 마무리 시급 및 계획대비 뒤늦은 개통 ▪ 2호선 배차간격 및 차량 협소 ▪ 역 주변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미흡 ▪ KTX 유치 비용 대비 효과 미흡 우려 ▪ KTX, GTX 등 지역적 불균형 다소 존재	

☞ 버스노선 전면개편과 관련해서는 철도 노선과 연계한 다이렉트 노선 연계 및 신규 노선 증가 등으로 편리한 측면이 긍정적 평가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노선이 철도와 연계되어 환승 구간이 증가해 다소 불편한 점, 배차 간격이 긴 점, 개편에 따른 노선 홍보 미흡 등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음. 특히, 몇몇 지역의 경우, 있던 노선이 없어지거나 전혀 새로운 노선으로 개편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임.

☞ 한편, 버스노선 개편과 더불어 협소한 버스도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

[버스노선 전면개편]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철도 노선 중심으로 한 다이렉트 연계로 편리 ▪ 신규 노선 증가	지역적 편차에 따른 호불호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개편 이후 단기적인 불편 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개편 노선 홍보 강화, 배차 간격 개선, 효율적인 기존노선 재검토, 신 노선 지역 편차 해소, 상업시설 연계 버스 신설 등 방향으로 개선 작업을 제안함
부정적 평가	▪ 모든 노선이 철도 연계로 환승 구간 증가 불편 ▪ 차량 배차 간격 길어져 불편 ▪ 노선 개편 홍보 미흡 ▪ 버스노선 개편보다 버스도로 개선 시급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 긍부정적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낙후된 주변 정비 및 발전 차원, 인접한 지역 단절 해소 및 통행료 부징수 가능 등의 측면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진행 구간이 교통해소와 상관없는 구역이라는 점과 오히려 일반도로화시 교통 혼잡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 녹지 조성을 통한 통행 일반화가 되면 오히려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주변 낙후 지역 정리 및 발전 차원 긍정적 ▪ 남북 간 단절된 도심 불균형 해소 ▪ 일반도로화로 통행료 부징수 긍정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경우, 긍정적 견해 대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앞서고 있는 만큼, 사업의 정당성과 효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 시민 홍보 작업을 우선 전개할 것을 제안함.**
부정적 평가	▪ 인천기점 ~ 서인천IC 구간 교통난 해소 무의미 ▪ 일반도로화 이슈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징수 이슈 사라짐 ▪ 일반도로화 공원 녹지 조성, 방음벽 제거 등 역효과 우려 (교통혼잡, 도로위험, 소음심화)	

3) 개선 및 추가 사항

☞ **건설교통 분야 진행 사업 개선 사항으로는 GTX, KTX 조기 개통이 주로 제기되고 있으며, 2호선 배차 및 차량증설과 함께, 수인선 완료 개통 및 버스 배차 간격 조정에 대한 개선 사항이 언급됨.**

☞ **한편, 건설교통 분야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인천3호선 사업, 버스 도로 확장, 강화도 진출입 도로 확장, 광역버스/급행버스 개편, 개설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철도연장	▪ GTX, KTX 조기 개통 추진 ▪ 2호선 배차간격 및 차량 증설 ▪ 수인선 조기 연장 개통 추진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인천 3호선 사업** ▪ **비좁은 버스 도로 확장 사업** ▪ **강화도 진출입 도로 개선 사업** ▪ **자전거 도로 확대 사업** ▪ **광역버스 노선 개편 (잔여 좌석 표식)** ▪ **급행버스 노선 개설**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
버스노선 개편	▪ 버스 배차 간격 개선 ▪ 버스 노선 증설로 지역 편차 해소 ▪ 버스 노선 개편 적극적 홍보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	▪ 지역 정비 및 단절 해소 중심의 고속도로 일반화 ▪ 통행료 부징수 우선화	

10. '도시계획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도시계획 분야]

1) 원도심 부활

➢ **개항장 일대 해양+문화+관광 융합 글로벌 도시로 개발**

※ 개항장 : 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공모 대상지로 선정

→ 인천개항창조도시 선도사업(상상플랫폼, 우회고가 정비,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을 통해 33개 사업간 연계와 민간투자 유치

➢ **인천 내항 재개발**

→ 민간사업자 구하지 못해 시행 여부 불투명했던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 (전국 최초)

- 도시재생지역 내 항만 재개발 사업에 공공개발 방식 적용

➢ **개발 지체된 원도심 개발 진행**

→ 도화구역, 청천2구역,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 등에 뉴스테이사업 도입 원도심 현 주민들 재정착 추진

- 도화구역: 2,653세대 중 2,105 뉴스테이세대
- 청천2구역: 5,190세대 중 3,247 뉴스테이세대
- 십정2구역: 5,678세대 중 3,597 뉴스테이세대
- 송림초교부근: 2,430세대 중 1,627 뉴스테이세대

2) 도시재생공모사업

➢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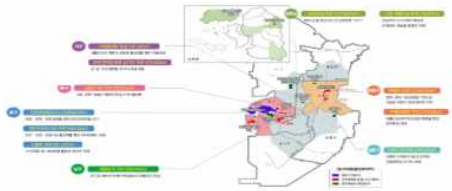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강화읍 관청리, 신문리, 남산리 일대)

→ 강화군 유휴공간 거점화, 강화나들길 마을 가꾸기, 산성 안 쉼터 조성, 왕의 길 역사문화가로 특화사업 추진

➢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

→ 마을회관, 놀이터, 도서관 등 주민 공동시설 설치,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 서구: 가재울마을 주변,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 동구: 송림5거리 주변
- 중구: 인천개항창조도시, 안부두어시장 주변, 신흥동 일원
- 남구: 제물포역 주변
- 부평구: 부평역 일원, 부평아울렛 주변
- 남동구: 만부구역 주변
- 강화군: 강화군청 주변, 교동 대룡시장 주변



➢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주민 분쟁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중단 구역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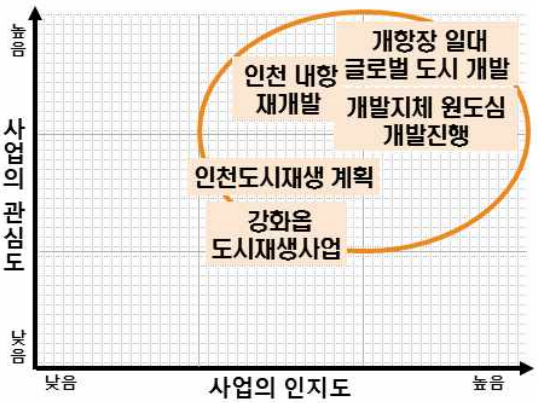
→ 향후 도시정비사업 구조 개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거주 주민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사업 지원 예정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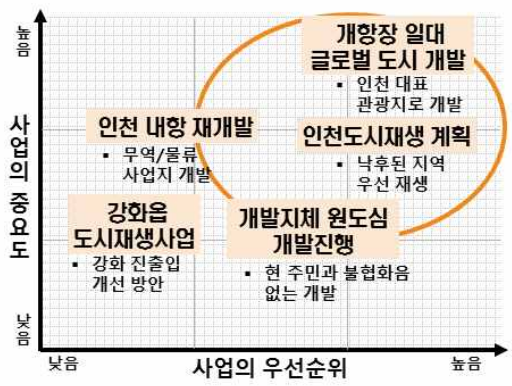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원도심 부활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음.**

☞ **한편,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개항장 일대 글로벌 도시 개발 사업이 인천의 대표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원도심 부활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의 시급성 차원에서 중요하며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며 특히, 개항장 일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지역으로서 부활을 위해 우선적인 역량을 투입해야할 곳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수준 낮은 개발 방향이나 졸속 진행이 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주변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개발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도심 부활]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개항장 일대 인천 대표 관광 지역으로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 ▪ 지체된 원도심 개발 사업 시급 ▪ 내항 재개발로 항구 물류 사업 강화	**'원도심 부활' 사업의 경우, 특히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지역 부활을 위해 우선적인 추진을 주문하고 있으나,** **졸속 개발은 지양할 것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체된 원도심 개발 사업은 실제 원주민에게 도움 되는 개발 방향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부정적 평가	▪ 원도심 뉴스테이 사업 진행시 현 주민 경제적 부담 우려 ▪ 개항장 일대 개발 방향성 및 졸속 진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 주변 기반 시설 미흡에 대한 우려	

☞ **강화도 관광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긍정적이나, 문화유적 및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와 제반 문화시설 및 기반 시설이 없는 개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됨. 또한, 강화도 내부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서 강화 진출입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는 개발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도시재생전략 사업의 내용은 기본적인 사안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도한 재생개발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현 주민의 이탈 및 대립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도시재생공모사업]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강화도 관광지 개발로서 효과 극대화 ▪ 도시재생 전략 사업 내용은 기본적인 개발 필요	**도시 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 피해 없는 범위에서, 지역별 주제가 담긴 도시 재생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강화 지역 개발은 자연 및 문화재 훼손에 주의하고, 강화 지역 내부 관광 인프라 개발과 함께, 수도권에서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진출입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이 동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정적 평가	▪ 강화도 자연 훼손 우려 ▪ 강화도 진출입 어려움 해소 필요 ▪ 강화도 내 제반 문화/기반시설 부족 ▪ 과도한 도시 재생 개발로 부동산 가격 상승 – 지역 이탈, 주민과 대립	

3) 개선 및 추가 사항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다양한 도시 개발 사업이 현 주민과의 마찰이나 이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낙후 지역에 대한 시급한 진행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추가적인 도시계획 분야 사업으로는 주제가 있는 지역 도심 재생 개발과 함께, 도시 기반 시설(도로, 교통 등)이 담보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신도시와 원도심이 분열되는 느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 거론됨.**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개항장 일대 글로벌 도시 개발	▪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로 개발 ▪ 현대식 관광 문화 거리로 개발 ▪ 주변 기반시설 확충(교통/주차 등)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테마가 있는 도심재생 개발** ▪ **신도시와 원도심의 분열된 느낌 해소** ▪ **도시 인프라, 기반시설 (도로, 교통 등)이 갖춰진 개발 진행** ▪ **젊은층 유입 가능한 도시재생 개발** 등이 주로 언급됨.
인천 내항 재개발	▪ 무역/물류 중심 사업지로 개발	
개발지체 원도심 개발진행	▪ 현 주민과 불협화음 없는 개발 ▪ 현 주민의 경제적 부담 고려	
강화읍 도시재생 사업	▪ 자연훼손 없이,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 하에 개발 ▪ 강화 내부 문화, 기반시설 확충 ▪ 강화 진출입 도로 개선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 현 주민 이탈, 대립 없는 개발 ▪ 낙후된 지역 우선 진행	

11. '환경녹지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환경녹지 분야]

1)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매립면허권 획득**
- 수도권매립지 면허권 지분 없어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음
-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참여)로 인천시가 매립지 정책 주도할 수 있게 됨

➢ **기대효과**
-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개선,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조기추진,
- 체육시설,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 조성, 테마파크 조성,
-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한 High Tech 환경기업 유치,
- GCF권장 사업모델로 개도국에 운영, 기술노하우 전파 가능

2) 1인당 공원면적 확대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특·광역시 중 2위**
2014년 7.6㎡→2016년 10.96㎡(44.2% 증가)

3) 인천 녹색종주길 연결

➢ 도시개발로 단절, 조각난 녹지축 연결하여 **'인천 종주길'조성 예정**(15개 산지+2개하천+8개공원)
- 계양산~천마산~마월산~소래산~장수천~오봉산~문학산~청량산~해돋이공원~센트럴공원~솔찬공원 등 60km

➢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4) 글로벌 녹색도시로 성장

➢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치
※ **녹색기후기금(GCF)**: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

➢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친환경 부문 2년 연속 종합대상 (2016~2017)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국 1위', 온실가스 감축 원년 '전국 최초 '

5)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및 옛 물길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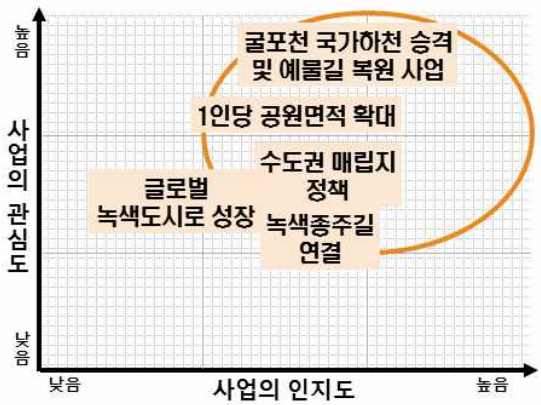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국가하천 승격**' 승인(2016.12.28)
- 하천유역의 40%가 한강수위 이하의 저지대
- 물고기 떼죽음 등 정비 시급
- 인천시 지속적으로 국가하천 승격 건의

➢ 도시화, 산업화로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굴포천 옛물길 복원 예정***
→총사업비 636억원 규모, 길이: 1.27km, 2022년 사업완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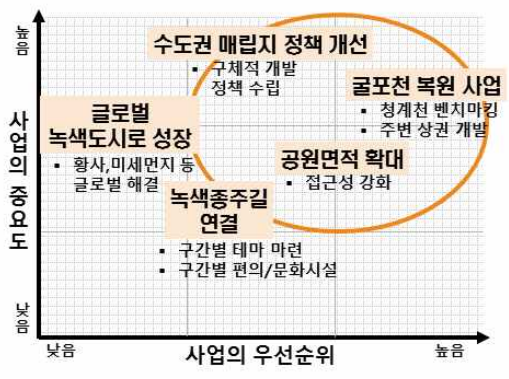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 **환경녹지 분야 시정사업 관련 전반적으로 굴포천 사업 및 공원면적 확대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향후, 중요 우선순위 사업 역시, 청계천 벤치마킹을 통한 굴포천 복원 사업 및 접근성 강화 차원의 공원면적 확대 사업이 제기되고 있음.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전반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매립면허권 획득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의지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대효과 실현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잘 준비되어야할 것이라는 의견임.**

☞ **그러나, 기대효과로 제시된 개발 계획과 관련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소유권, 매립면허권 획득 자체 긍정 ▪ 기대효과 실현을 위한 철저한 개발 계획 필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매립면허권이 획득된 만큼, 기대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졸속 계획이 아닌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우선 준비되고, 시민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부정적 평가	▪ 기대효과 실현에 대한 전반적 의구심 - 예산 낭비 등	

☞ **인천 공원 면적 확대 및 정비, 개선 차원은 전반적으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 **특히, 현재 공원면적 대비 접근성이 약하며, 주거지 근처 도심공원은 많이 부재하여 지역적인 편차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또한, 현재 갖추어진 공원의 경우에도 사후 관리 및 유지 차원의 이슈가 있어, 오히려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1인당 공원면적 확대]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전반적인 공원면적 확대는 긍정적 ▪ 공원 확대 및 정비, 개선 긍정적	**'공원면적 확대' 사업은 확대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에 집중이 필요하며, 면적 확대 대비 접근성 강화(도로, 교통, 주차 등), 주거지 근접성 확대(쉼터공원 등) 등을 통해 지역적 편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부정적 평가	▪ 공원면적 대비 일상적 접근성 약함 ▪ 근접성 높은 주거지 도심공원 부재 ▪ 신도시 vs. 구도심 지역적 편차 심함 ▪ 실생활 이용을 위한 관리 미비 - 우범지역 이미지	

☞ **안정적인 여가 활동 구간 확보 및 구간별 위험요소 해소 등의 차원에서 녹색종주길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너무 긴 구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마니아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구간 연결의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고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됨.**

☞ **특히, 단순히 종주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도 주제를 두어 인천의 올레길 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인천 녹색종주길 연결] 평가

긍정적 평가

- 안정적인 여가 활동 공간 확보
- 육교, 도로 등 위험 지역 해소
- 구간별 주제가 있는 녹색종주길 마련

부정적 평가

- 마니아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환경개선 사업 이미지
- 장거리 부담으로 이용성 미미 우려
- 연결 구간 편의성, 시설 부재 우려

[향후 진행 방향 제언]

'녹색 종주길 연결' 사업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단순한 종주길 연결이 아닌 구간별 주제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친환경 및 녹색도시 성장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이나, 아직까지 인천이 녹색도시라는 이미지가 미미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임.**

☞ **특히, 시 정책 차원에서 녹색 친환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한 시의 지원, 공용 자전거(따릉이) 등과 같이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글로벌 녹색도시로 성장] 평가

긍정적 평가

- GCF 유치, 에너지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의미
- 환경 개선(미세먼지 등) 차원의 노력

부정적 평가

- 친환경 녹색도시로서 이미지 미미
-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필요
- 녹색 친환경을 위한 정책 강화
  - 전기차 지원, 따릉이 사업 등

[향후 진행 방향 제언]

'녹색도시로 성장' 사업은 시정 차원에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개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기차 지원, 공공자전거-따릉이 사업 등)

☞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국가 지원 확보 및 정비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의 발전 및 주변 상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시기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시급히 전개되었으면 하는 의견과, 옛 물길 복원 이후의 관리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사업비 부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및 옛 물길 복원]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국가 지원 확보 ▪ 도시정비, 도심 휴식공간 확보 효과 ▪ 굴포천 주변 상권 확대 효과	**'굴포천 옛물길 복원' 사업은 관심도가 높은 사업으로, 구도심 정비 및 시민 휴식 공간 확보 및 주변 상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평가	▪ 시기 상 늦은 감 있음 ▪ 복원 이후, 향후 관리 우려 ▪ 사업비 부담	

3) 개선 및 추가 사항

☞ **환경녹지 분야 공원면적 확대 사업은 유지/관리 및 접근성 강화, 구도심 공원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며, 굴포천 옛물길 복원 사업시 청계천 벤치마킹과 함께 주변 상권 개발도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추가 사항으로는 녹색종주길의 테마화, 시의 친환경 지원 정책 강화, 갯벌 사업 유도, 공장지대 오염 관련 규제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음.**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	▪ 인천 시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방향 마련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녹색종주길을 인천의 올레길 처럼 구간별 테마 마련** ▪ **친환경 지원 정책 강화 필요 (예-전기차 지원, 따릉이 등)** ▪ **매립을 통한 개발이 아닌 갯벌 유지 사업도 필요** ▪ **공장 지대 대기 오염 관련 규제, 관리 강화 필요** 등이 주로 언급됨.
글로벌 녹색도시로 성장	▪ 황사, 미세먼지 등 글로벌 해결 ▪ 녹색 환경 정책(친환경 차량 등)	
1인당 공원면적 확대	▪ 유지관리 및 접근성 강화(교통 등) ▪ 구도심 공원 확대	
인천 녹색종주길 연결	▪ 구간별 안전, 편의시설 마련 ▪ 구간별 자전거 도로 ▪ 구간별 테마 마련	
굴포천 옛물길 복원	▪ 청계천 벤치마킹 ▪ 주변 상권 개발	

12. '재난안전(소방) 분야' 주요 시정 사업 평가

[보기제시 - 재난안전(소방) 분야]

1) 재난 · 안전 역량강화

- 역세권 대규모 지하상가, 항·포구 4개 지역
  재난·안전 통합대응체제 예보·경보 시스템 도입
  - 부평구: 갈산-부평 역세권, 남구: 석바위·주안 역세권
  - 강화군: 황산도항 외 8개항, 옹진군: 선진포항 외 7개항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실시간으로 상황 전파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 가능

2) CCTV 확대

- ***방범용·지능형CCTV확대***
  - 2014년: 2,938대 → 2015년: 3,077대 → 2016년: 3,539대
- ***어린이 보호 CCTV확대***
  - 2014년: 1,433대 → 2015년: 1,601대 → 2016년: 1,863대
- ***CCTV통합관제센터 확대***
  - 2014년: 4개소 → 2015년: 6개소 → 2016년: 8개소

3) 소방서비스 강화

- ***지속적인 소방력 확충***
  - 공항소방서, 청라119안전센터, 무의 119지역대 신설,
  - 송도소방서,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 개선 예정
-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 노후 소방차량 보강, 소방인력 증원,
    전통시장 주거시설 기초소방 시설 보급, 소방차량 교체를 통한 노후율 개선
- 구급차량 1대당 구급대원 3인 탑승체계 확립,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시스템

4) 해양경찰 부활

- ***해양경찰청 폐지 3년만에 독립 외청으로 부활***
  -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수상 레저인구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 중요성, 크고 작은 해양사고 예방, 서해5도 안보 수호
- 해양경찰청 본부 인천 환원 위해 노력 중 (현재 세종시 위치)

5)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 세계 도시·국가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 실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결과 118개국 342개 도시 중 인천 1위 선정
  ※ 1위: 인천(대한민국), 2위: 교토(일본), 3위: 서울(대한민국), 4위: 에스키세히르(터키), 5위: 뮌헨(독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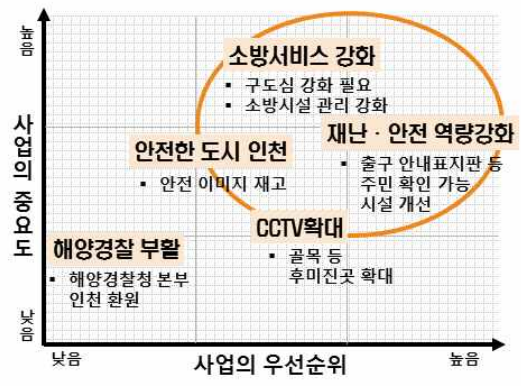
1) 인지/관심도 및 중요/우선순위 평가

☞ **재난 안전 분야 시정 사업에서 재난·안전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 역시 높게 나타남.**

☞ **한편, 안전한 도시 인천 선정의 경우, 현실감 없는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전한 이미지 재고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인지도 및 관심도]

[중요도 및 우선순위]



2]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진행 방안 제언

☞ **역세권 대규모 지하상가, 항, 포구 지역 예보/경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시급성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의 실제 실행 여부 및 실시간 재난 대응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다소 가지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출구 안내 표지판 강화, 소방 장비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재난·안전 역량강화]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도입 지역에 대한 시급성 확인	**'재난안전 역량강화' 사업은 재난 시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 시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면 (출구 안내표지판, 소방시설 점검 등)이 우선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음.**
부정적 평가	▪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 ▪ 실시간 재난 대응 실효성 의구심 ▪ 출구, 안내 표지판, 소화기 강화 필요	

☞ **과거 대비 CCTV 확대 된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CCTV 확대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장비 교체가 필요 하며, CCTV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 역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또한, 신도시와 더불어 큰 도로, 아파트 내부 등은 많이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골목 내부 등은 많이 부족하며, 성범죄 알림이, 가로등 확충 등 CCTV이외 안전시설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CCTV 확대]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과거 대비 CCTV 확대	**'CCTV확대' 사업은 기존 장비 점검 및 교체 검토와 함께, CCTV설치가 잘 확인될 수 있는 주변 환경 개선 (가로등 밝기 확대 등) 등의 차원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부정적 평가	▪ CCTV 장비의 질 개선 ▪ CCTV 잘 확인될 수 있는 환경 개선 ▪ 큰 도로, 아파트 내부 대비 골목 CCTV 미미 ▪ 성범죄 알림이, 가로등 확충 등 CCTV이외 안전시설 강화	

☞ **소방 서비스 강화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가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119 차량 진출입 원활을 위한 도로 개선이 시급하고, 응급센터 확충 및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도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내기도 함.**

☞ **한편, 소방 서비스 강화가 신도시 중심으로 확충되는 점이 다소 아쉬우며, 원도심 낙후 지역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구급차량 3인 탑승 등 구급 체계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을 제기함.**

[소방서비스 강화]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소방서비스 강화 시급	‘소방서비스 강화’ 사업은 신구도심 편차가 있다는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도심의 경우 소방 도로/교통(진출입) 상황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시정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시 전반에서 낙후된 의료시설 관리/감독 강화 방안 역시 제기되고 있음.
부정적 평가	▪ 소방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진출입 도로 문제 심각 ▪ 구급차량 3인 탑승 체계 도입 늦음 ▪ 응급센터 확충 및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 필요 ▪ 신도시 중심의 강화	

☞ **참석자 대부분이 해양경찰 부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가운데, 인천으로의 해양경찰청 본부 환원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임.**

☞ **한편, 해양경찰 부활이 지난 과거와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임.**

[해양경찰 부활]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해양경찰 부활 당연 ▪ 해양경찰청 본부 환원 당연	해양경찰청 본부 환원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차원의 운영이 인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이미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정적 평가	▪ 예전과 같은 운영 지양	

☞ 과거 대비 안전한 분위기로 개선된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결과 1위 선정에 대해서는 믿기지는 않지만 홍보를 통한 이미지 개선에 더욱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전 도시 선정 기준 의심과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며, 아직까지 타 도시 대비 안전한 도시 이미지는 미흡하다는 의견임.
또한, 구도심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평가		[향후 진행 방향 제언]
긍정적 평가	▪ 홍보를 통한 이미지 개선 ▪ 과거 대비 안전한 분위기 확산	안전한 도시 선정 조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천의 안전 이미지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안전 강화 및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통한 안전 이미지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 평가	▪ 선정 기준 의심, 현실감 부족 ▪ 타 도시 대비 안전한 도시 이미지 미흡 ▪ 구도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이미지 제고	

3) 개선 및 추가 사항

☞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 재난안전 역량강화 측면이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이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소방서비스의 경우 신도시 이외 구도심 강화, CCTV 질/환경 개선과 골목 등 후미진 곳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한편, CCTV 확충과 더불어 가로등 확충 및 밝기 개선, 재난 문자 적정 수준 발송, 안전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변 정비 및 환경 가꿈, 항구 및 선박 안전 점검, 폭우 수해 대비를 위한 원도심 상하수도 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진행 사업 개선 사항]		[향후 추가 진행 사업]
재난.안전 역량강화	▪ 출구 안내표지판 등 주민 확인 가능한 실질적인 측면 개선 필요 ▪ 전반적 매뉴얼 점검	관련 분야 향후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 **가로등 확충 및 밝기 강화** ▪ **가로등 비상버튼 설치 사업** ▪ **재난 문자 적정 수준 발송 – 예산 절감** ▪ **안전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낙후 지역 주변 환경 정비** ▪ **인천 특성상 항구 지역, 선박 안전 점검** ▪ **원도심 상하수도 점검 등 폭우 수해 대비** 등이 주로 언급됨.
소방서비스 강화	▪ 신도시 대비 구도심 강화 필요 ▪ 지역 주민 대상 소방 교육 실시 ▪ 소방시설 관리 서비스 강화	
CCTV확대	▪ CCTV 장비 질 개선 ▪ 골목 등 후미진 곳 확대	
해양경찰 부활	▪ 해양경찰청본부 인천 환원 노력	
안전한 도시 인천 선정	▪ 다양한 안전한 이미지 재고 사업 진행	

4 현 인천 시정 운영에 바라는 점

* 1차 경제산업, 재정산업, 문화관광체육산업, 인천가치재창조(행정/공공서비스) 분야 진행시 의견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인천시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채감축을 위해 시민에게 거두려고 하지 말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인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보여 주기식 사업 말고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해요"

"꼭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일단 문화적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할 때 이 사업 저 사업 하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정착시켜서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장기적인 시각으로 진행하고, 바이오 산업 같이 인천만의 성장동력을 선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브랜드를 좀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만들고, 재정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해요."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자]

"지하 전철로 인천 양쪽 이분화 되어 있는 것을 합쳐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교육환경 부분이 제일 꼴찌입니다. 민선 시장이 그런 것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천이 빈부의 격차가 크니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미지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3의 도시인데 인천이 사실 평가 절하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긍심도 결여되어 있고, 정책을 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거창한 것보다 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작은 것부터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구간이 많아 빈민 취급 받는 기분이 들어요. 공사를 하더라도 정리만 잘해도..."

"지역에 낙후된 부분을 좀 골고루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독자적인 것이 없어요. 시민 생활도 서울 중심이고, 인천만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해요"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자]

"인천이 특정 지역만 발달되어 있어요. 너무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적절하게 해서 어느 구에 살더라도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벌려 놓고 매듭을 못 짓는 느낌이 들어요.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동구나 중구나 이런 쪽을 많이 발전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는 좋은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많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상한 돈 드는 사업을 하지 말고, 불균형 하니까 다른 지역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이 굉장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쓸데 없는 것 계획은 자제해 주고 균형 있게 저소득층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 계획세우지 말고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사업이나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인천 이미지도 안좋고, 전반적인 행정 운영이나 복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 전단지 외 인천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시민한테 많이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구체적으로 대상도 명확하게 하고, 특성화된 맞춤형 산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SNS활동도 하구요. 의견을 듣는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인천만의 특성화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에 이용하면 홍보가 잘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창구가 좀 제한되어 있는데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시행할 때 제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제발 정책을 만들 때 윗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어려운 분들 찾아보고 그런 분들을 사회에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인천시에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들이 인천에 관심을 더 갖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 하면 항상 경기도나 서울 변두리 쪽에서 소외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천 이미지 개선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치안에 중점을 두고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 하면 추천할 만한 데가 딱히 없어요. 그런 관광지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벌리는 것 보다도 있는 것 위주로 잘 해서 수입도 늘리고 부채도 갚는 식으로 했으면 해요"

"무리한 투자는 좀 자제하고,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해요."

"아파트/상가 올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전 것도 좀 지키면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 2차 보건복지, 경제산업(일자리), 교육,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진행시 의견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정책들이 저렇게 많은데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요 전시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

"다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벌이기 보다는 모아서 몇 가지 특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잘 홍보를 안 해준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 소통하는 그런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써 놓고 까 보면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집중했으면 해요."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보여주기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바뀌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쭉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괜찮은 지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자]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건 추진하는 거에서 30% 정도는 진짜 확실하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천 살면서 인천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홍보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쉽습니다."

"처음 들어보는게 많아요.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인천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어설프게 눈 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고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생활에 다가 오게끔 일을 진행했으면 해요."

"뭔가 소통을 하고자 이런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희망이 보이네요."

"인천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그걸 포인트로 한 사업이 있으면 색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인천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처음 알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뭔가 하는 줄 몰랐는데 홍보도 많이 해주면 좋겠고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접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이 시점에 중요한 것 같아요."

"제발 다른 거 벌일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걸 더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와 닿는 내용들이 많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게끔 시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시행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묻고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상호 의견이 교환이 되는 인프라 구축이 되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작만 하지 말고 추진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끝까지 추진력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인천에 살지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생기고, 지금 추진하고 것들 잘 했으면해요."

"그런 것들을 우편이나 유인물로 보내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네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자]

"교통해결 방안으로 마을버스를 활성화와 7호선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중간에 가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제도시, 관광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안가잖아요. 그쪽도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시가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고 가고, 인천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성화된 지역의 그런 걸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인천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잘 끝까지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홍보도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빛 없는 인천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 3차 건설교통, 도시계획, 환경녹지, 재난안전(소방) 분야 진행시 의견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쓸데 없는 돈 쓰지 말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껴서 재정 관리 하고 다른 거 전전히 하면 좋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나름 탄탄한데 그 정도로 탄탄하고 저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다른 짓 안 하면 이미지 개선은 쉽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요."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낭비한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썼면 좋겠습니다."

"문화주권이 인천 시민 행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큰 시설을 짓기 보다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문화공연, 편의시설을 잘 유치해서 문화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많은데 그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투명하게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 분야라 그런지 보여주는 것이 큰데, 소소한 것도 챙겨주는 도시 이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지역 상가를 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자]

"인천이 독자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도 많은 것 같은데 잘 마무리 하면 좋겠어요."

"이번 시장님도 잘 해서 연임을 하시던 가시더라도 진행되던 사업이 잘 연계 되면 좋겠어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인재를 키우는 방법을 고민 해야 된다고 봐요."

"인천에서 계속 땅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그만 짓고 외국 기업 유치하면 좋겠어요."

"개발해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을 대표 할 수 있는 큰 거 하나를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래포구도 그렇고 코리아 타운 월미도 가 봤는데 아쉬운 거는 관리가 안 되어서 실망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개발 하면 좋겠어요."

"타 지역 보다 특화된 것을 많이 개발하면 좋겠고 인수인계 잘 되어서 꾸준히 이어가면 좋겠어요."

"예산 낭비 하지 말고 빚 빨리 빨리 갚았으면 합니다."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재개발을 해주면서 보존 해야 하는 거는 보존 해 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사업을 계속 벌리는 거 보다 지금은 부채를 없애는 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세금 내는 것이 안 아까우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인천시가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개인적으로 청년 복지나 인천 시민에 대한 복지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인천시에 바라는 게 엄청 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유지 보수 잘하고 새로운 개발을 하고 세우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을 보충 하고 보완을 해서 잘 돌아가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천 하면 제일 생각 나는 게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진행 되는 재개발은 빨리 진행 되면 좋겠어요.".

"시장 선거 할 때 마다 나오는 공약들이 저기에 집합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세금이 안 아깝게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인천이 문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좀 생각해서 도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만 세우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하면 좋겠어요."

"인천이 발전하려면 인구 유입이 많아야 되고, 거기서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고요."

"인천 이미지가 예전에 조폭이 많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지금 신도시 생기면서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어요. 많은 거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다음 시정에 넘기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선 사업을 잘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천에 살고 싶게끔 했으면 해요."

"이미 벌어진 거에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자]

"인천 만의 것을 더 만들어서 외부 사람이 모이면 지금보다 이미지 자체도 좋아질 거 같고, 인천 시장이 소통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겠지만 느끼기에는 소통다운 소통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복지나 일자리 같은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 생각하고,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 외부 관광객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 사업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싶고, 좀 더 시장님이 정보를 찾고 같이 할 수 있는 가까운 시장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결정 되었을 때 정말로 자리에서 행해지는 거 보다 발로 뛰어서 그 자리에 확인을 하고 발로 뛰는 시정이면 좋겠어요."

"일단은 인천이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만 되면 인천은 더 발전 되겠죠. 문제는 빚을 얼마나 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 하시겠죠."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제 3 장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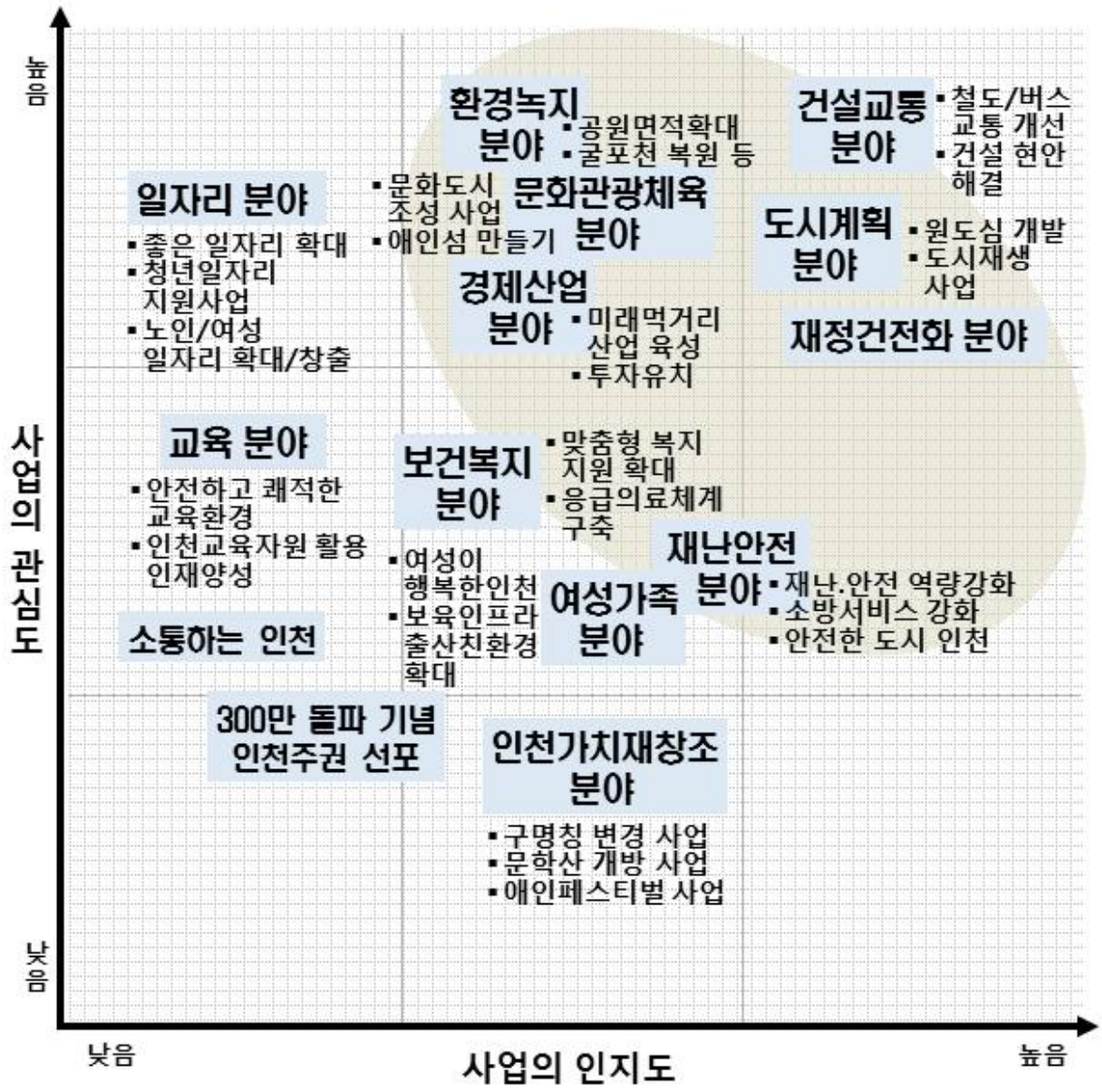
요약 및 결론

1 현 인천 시정 사업 인지 및 관심도 평가

☞ 현 인천 시정 사업 관련 건설교통, 도시계획, 재정건전화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세부 시정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시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반면, 환경녹지, 문화관광체육,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는 인지도 대비 관심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 관련 시정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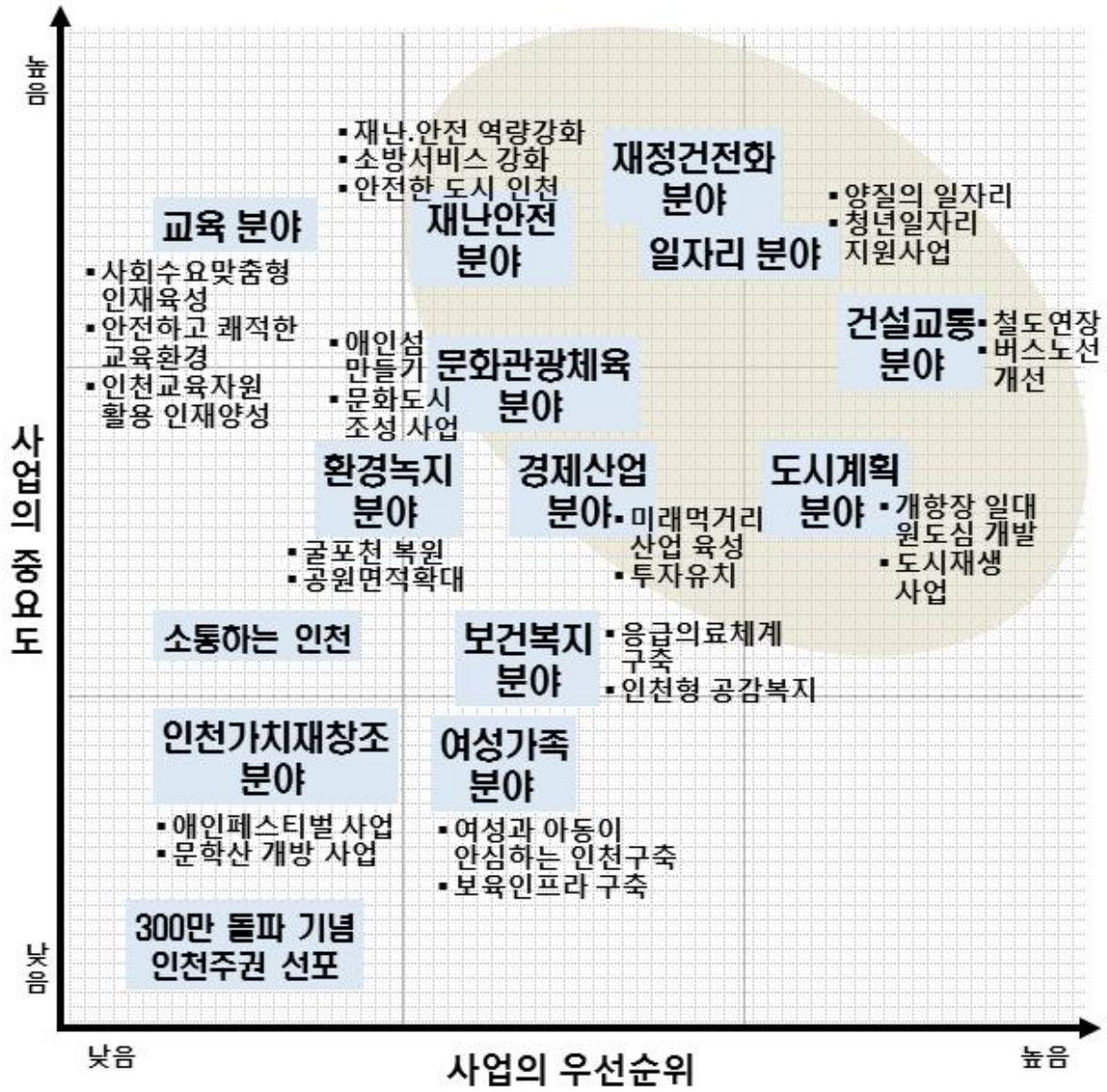
☞ 한편, 보건복지, 재난안전, 여성가족, 교육 분야 등의 시정 사업은 성과 대비 시민들이 인지하는 수준이 낮은 만큼, 진행 사업 자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2 현 인천 시정 사업 중요 및 우선순위 평가

☞ 현재 진행 중인 시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철도연장 및 버스노선 개선의 건설교통 분야와 개항장 일대 원도심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의 도시계획 분야가 우선 전개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 분야와 인천의 재정건전화, 재난안전 분야 역시 중요하면서도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교육, 문화관광체육, 경제산업 분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며, 소통하는 인천, 환경녹지,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의 시정 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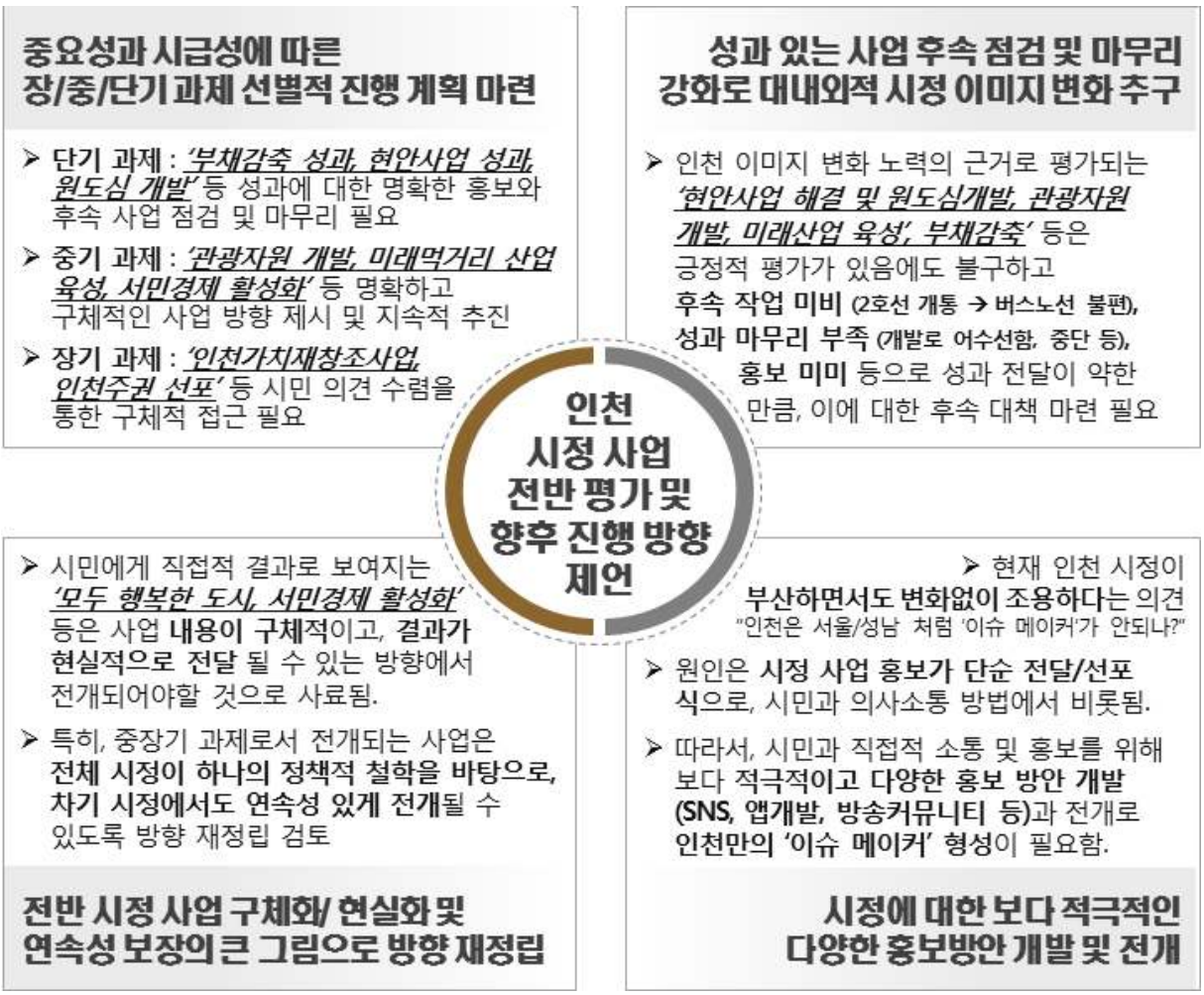
3 현 인천 시정 사업 개선 및 제안 사항

[분야별 이슈 및 개선 방향]		[분야별 추가 제안 사항]
경제산업 분야	▪ 투자유치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및 인천 대표 육성 산업이라는 측면 홍보 강화 ▪ 투자유치 사업에 한정된 개발이 아닌 주변 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 활성화 ▪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문성/노하우' 약화 방지 방안 마련, 차기 시정 연속성 담보	▪ **경제산업 시정 운영시 인천만의 특화 산업 개발에 중점 역량 투입** ▪ **관련 사업 진행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재정 건전화 분야	▪ 시정의 '재정 건전화' 노력 홍보 적극화 ▪ 시정의 효율적 진행으로 예산 절감 노력 ▪ 시 재정 마련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	▪ **예산 낭비 시정 축소** ▪ **시 재정 마련 사업 개발 및 적극적 진행**
문화관광 체육 분야	▪ 스포츠 시설 활용성 강화 및 주변개발 ▪ 다양한 문화조성 사업 전개시 주변 연계 및 인프라시설 확보(교통/주차 등) ▪ 인천만의 특색과 상징성이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상품 개발	▪ **개발 시설 주변 인프라 구축** ▪ **인천 콘텐츠/캐릭터 개발** ▪ **주변 문화관광코스 연계**
인천가치 재창조 분야	▪ 시민에게 느껴지는 의미 다소 미약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사업 전개 ▪ 구명칭 변경 사업은 예산 낭비 인식 전환 ▪ 문학산 주변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 애인(愛仁)페스티벌 사업은 인천만의 특별한 콘텐츠와 테마 뒷받침	▪ **인천가치재창조 의미에 걸맞은 사업 개발** ▪ **인천 특성이 반영된 콘텐츠 및 테마 개발**
보건복지 분야	▪ 일부 사업 보완 및 홍보 활성화 집중 ▪ 복지 지원 조건 완화와 대상 확대 ▪ 복지 지원 인력의 질적 일관성 유지 노력 ▪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장애 복지 서비스에 강한 도시 이미지 구축	▪ **미혼모, 편부모, 소년소녀 가장 복지 지원 강화** ▪ **신규 복지 지원 홍보 강화, SNS 및 문자 발송** ▪ **노인 계층 예방접종 연령 완화**
일자리 분야	▪ 일자리 지표 성과 홍보 강화와 지원 사업의 현실적인 도움 및 질적인 부분을 강화 ▪ 청사진의 지원 조건 완화와 접근성 강화 - 수혜자 선정 신뢰성 확보 ▪ 노인 인력의 질적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일자리의 다양한 추진 ▪ 경단, 주부여성 현실 조건에 부합하는 접근이 용이한 단기/숏타임 일자리 확대	▪ **인천 대표 해외기업 및 공기업 유치/지원 강화** ▪ **노인계층 관광자원, 전통시장 일자리 활성화** ▪ **제조업 탈피 IT, 예술 분야 일자리 개발** ▪ **중년층, 조기 퇴직 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

[분야별 이슈 및 개선사항]		[분야별 신규 제안사항]
교육 분야	▪ 학교 안/밖 모두 환경시설 및 교육자원 개선, 실제 도움 되는 진로체험 프로젝트 진행 ▪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시설 및 기관 유치 ▪ 행정적 평생학습 기관 운영이 아닌, 전문성과 질적 내용 담보된 기관의 운영	▪ **인천 특화 교육시설 유치** ▪ **어린이 영재개발 교육 기관 설립 및 운영** ▪ **지역 유사 학교 및 활동 교류 강화**
여성가족 분야	▪ 여성 인력 DB구축의 실효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가시적인 성과 홍보 ▪ 보육인프라는 시설 확충 대비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관리 측면에 집중 ▪ 출산 지원 혜택 조건 완화 및 확대 ▪ 안심 드림 사업은 전담 인력 확충으로 밀착형(귀가 도우미 등) 사업의 강화	▪ **경단, 주부 시간 활용한 단기/숏타임 일자리 확대** ▪ **경력단절 여성/주부 사업비 지원 사업** ▪ **보육교사 체계적 교육/ 심리 평가 등**
건설교통 분야	▪ 철도 개통 완료 노선 안전 관리 및 불편사항 (배차간격, 주변 부대시설 미비 등) 완화 ▪ 버스노선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배차 간격 개선, 개편노선 홍보 강화 필요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효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인천 3호선 사업** ▪ **버스 도로 확장 사업** ▪ **자전거 도로 확대 사업** ▪ **광역버스 노선 개편 (잔여 좌석 표식)** ▪ **급행버스 노선 개설**
도시계획 분야	▪ 개항장 일대 인천 대표 명소/관광지로 부활 - 졸속 개발 지양 ▪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 피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 ▪ 수도권에서 강화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진출입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도로확장)	▪ **테마 있는 도심재생 개발** ▪ **젊은층 유입 가능한 도시재생 개발** ▪ **신도시와 원도심 분열된 이미지 해소 방안 마련**
환경녹지 분야	▪ 수도권 매립지 사업은 졸속 계획이 아닌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 하에 개발 ▪ 공원 유지/관리와 접근성 강화(도로, 교통, 주차 등) 및 주거지 근처 도심공원 확대 ▪ 녹색종주길 연결시 편의시설, 안전시설 마련 ▪ 굴포천 옛물길 복원' 사업은 청계천 벤치마킹과 주변 상권 동시 개발	▪ **녹색종주길 올레길처럼 구간별 테마 마련** ▪ **친환경 시정 지원 정책 (전기차 지원, 따릉이 등)** ▪ **매립 개발이 아닌 갯벌 유지 사업도 필요** ▪ **공장지대 대기 오염 관련 규제, 관리 강화 필요**
재난안전 분야	▪ 시민 스스로 대응 가능한 재난안전 역량강화 - 출구 안내표지판 확충, 소방시설 점검 등 ▪ CCTV 기존 장비 점검 및 교체와 함께 CCTV 설치 주변 환경 개선(가로등 밝기 확대) ▪ 소방서비스 신구도시 편차 인식 해소 및 구도심 소방 도로/교통(진출입) 상황 개선 ▪ 구도심 및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 안전 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	▪ **가로등 확충/밝기 강화, 비상버튼 설치 사업** ▪ **재난 문자 적정 발송** ▪ **낙후 지역 환경 정비 (안전 이미지 확보)** ▪ **항구 및 선박 안전 점검** ▪ **원도심 상하수도 점검**

4 현 인천 시정 사업 향후 진행 방향 종합 제언

☞ **향후, 인천 시정 사업 전반적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진행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언하면,**
- **장기적인 인천의 전반적 이미지 제고 및 중/단기 과제의 선별적 진행 계획 마련**
-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후속 점검 및 마무리 노력**
- **사업 내용의 구체화/ 현실화, 인천과 연계성 및 특성화와 차기 시정의 연속성 담보**
- **가시적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정 홍보 방안 개발과 이슈 메이커 활동 등으로 검토할 것을 제언함.**



부록 : 좌담회 참석자 Profile

Ⅰ. 1차 좌담회 참석자 Profile(6월 13일 ~ 16일)

1. 그룹 :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특성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이OO	만23세	미취업자	부평구	17년
박OO	만26세	대학생	부평구	15년
이OO	만27세	직장인	남동구	15년
정OO	만28세	직장인	서구	06년
이OO	만27세	자영업	서구	04년
한OO	만34세	자영업	계양구	25년
박OO	만34세	직장인	부평구	34년
신OO	만39세	직장인	서구	39년

2. 그룹 :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특성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김OO	만44세	직장인	계양구	20년
홍OO	만49세	직장인	부평구	09년
이OO	만47세	직장인	부평구	05년
최OO	만45세	자영업	남구	04년
김OO	만54세	자영업	계양구	12년
김OO	만59세	자영업	동구	40년
유OO	만59세	직장인	서구	07년
유OO	만52세	직장인	연수구	08년

3. 그룹 :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특성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이OO	만23세	대학생	부평구	23년
안OO	만27세	미취업자	남동구	27년
임OO	만27세	직장인	연수구	27년
김OO	만23세	직장인	서구	14년
성OO	만30세	자영업	서구	04년
조OO	만35세	자영업	서구	05년
김OO	만31세	직장인	부평구	04년
이OO	만30세	직장인	남구	30년

4. 그룹 :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특성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강OO	만42세	직장인	남동구	15년
박OO	만42세	직장인	연수구	16년
안OO	만42세	자영업	남동구	16년
조OO	만42세	자영업	서구	35년
김OO	만30세	직장인	부평구	30년
김OO	만33세	직장인	서구	04년
유OO	만38세	직장인	서구	38년
한OO	만30세	직장인	연수구	02년

5. 그룹 :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특성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김OO	만43세	전업주부	서구	25년
이OO	만43세	전업주부	연수구	20년
박OO	만48세	전업주부	부평구	11년
강OO	만43세	전업주부	서구	17년
김OO	만51세	전업주부	남구	20년
윤OO	만51세	전업주부	서구	30년
강OO	만58세	전업주부	남구	25년
한OO	만57세	전업주부	부평구	30년

Ⅱ. 2차 좌담회 참석자 Profile (7월 18일 ~ 21일)

1. 그룹 :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조OO	30세	직장인	남동구	29년
곽OO	32세	직장인	부평구	32년
박OO	29세	직장인	계양구	15년
고OO	27세	취업준비생	남동구	27년
이OO	32세	자영업	남구	07년
정OO	26세	취업준비생	부평구	25년
김OO	36세	직장인	계양구	36년
김OO	28세	직장인	남구	28년

2. 그룹 :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이OO	46세	자영업	남동구	15년
황OO	47세	직장인	남구	20년
김OO	50세	직장인	계양구	50년
장OO	47세	직장인	서구	10년
김OO	54세	직장인	계양구	13년
전OO	51세	직장인	계양구	27년
김OO	45세	자영업	계양구	10년
임OO	54세	자영업	계양구	27년

3. 그룹 :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윤OO	30세	직장인	남구	29년
오OO	30세	자영업	동구	30년
김OO	23세	직장인	부평구	15년
김OO	29세	직장인	연수구	29년
이OO	38세	직장인	부평구	05년
국OO	24세	취업준비생	계양구	20년
이OO	25세	취업준비생	계양구	25년
장OO	31세	직장인	연수구	25년

4. 그룹 :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김OO	37세	자영업	남동구	10년
강OO	45세	자영업	남동구	25년
김OO	36세	직장인	부평구	34년
김OO	48세	자영업	부평구	38년
김OO	30세	직장인	부평구	20년
홍OO	38세	직장인	서구	02년
김OO	43세	직장인	부평구	07년
추OO	49세	직장인	부평구	19년

5. 그룹 :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김OO	43세	전업주부	연수구	17년
천OO	58세	전업주부	남동구	05년
정OO	45세	전업주부	서구	10년
이OO	57세	전업주부	부평구	30년
김OO	40세	전업주부	서구	05년
이OO	41세	전업주부	연수구	08년
심OO	50세	전업주부	연수구	02년
황OO	56세	전업주부	부평구	30년

Ⅲ. 3차 좌담회 참석자 Profile (8월 23일 ~ 30일)

1. 그룹 :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한OO	26세	직장인	연수구	26년
김OO	26세	직장인	부평구	26년
김OO	28세	자영업	남동구	28년
김OO	27세	대학생	남구	14년
송OO	26세	대학생	남동구	25년
이OO	33세	직장인	부평구	34년
현OO	31세	직장인	계양구	31년
이OO	36세	자영업	남구	02년

2. 그룹 :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이OO	41세	자영업	계양구	10년
주OO	42세	직장인	서구	16년
권OO	41세	직장인	남구	02년
서OO	42세	직장인	부평구	06년
소OO	59세	직장인	부평구	24년
윤OO	57세	자영업	남동구	55년
심OO	53세	자영업	서구	25년
김OO	56세	자영업	계양구	17년

3. 그룹 :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한OO	27세	직장인	서구	25년
박OO	24세	직장인	연수구	24년
채OO	26세	자영업	남구	20년
정OO	28세	미취업자	남구	27년
정OO	26세	미취업자	남동구	25년
이OO	32세	직장인	계양구	32년
최OO	33세	자영업	남구	02년
신OO	37세	자영업	동구	37년

4. 그룹 :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문OO	33세	직장인	남구	02년
이OO	33세	자영업	남구	10년
방OO	32세	자영업	부평구	08년
이OO	35세	직장인	연수구	04년
지OO	41세	직장인	부평구	20년
최OO	44세	직장인	부평구	20년
김OO	48세	직장인	남동구	20년
송OO	48세	자영업	연수구	05년

5. 그룹 :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이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김OO	48세	전업주부	남동구	27년
김OO	43세	전업주부	중구	06년
최OO	47세	전업주부	남구	11년
이OO	48세	전업주부	남동구	15년
이OO	50세	전업주부	남동구	30년
배OO	53세	전업주부	부평구	29년
이OO	54세	전업주부	부평구	19년
조OO	52세	전업주부	남구	30년

부록 : 좌담회 가이드라인

시정 모니터링 좌담회 GUIDELINE

[1차 : 산업 분야]

2017년 6월

현대리서치연구소

FGI 진행 GUIDELINE

I. 도입 단계(Warming-up Stage) (10분)

☞ 좌석 표에 따라 자리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방 및 핸드폰, 책상 위, 의자 정리에 대해 부탁합니다.

○ 참석에 따른 감사의 말씀, 회사 소개

○ 좌담회 개최의 취지 및 목적 소개, 진행자 소개

- 주제 소개 :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당부 사항 : 1) 개인 신상 및 인적 사항 비밀 보장되므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씀해 주실 것
  2)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본인 자신의 상황과 의견으로
  말씀해 주실 것
  3) 정답/오답 없고, 분위기와 정반대 이야기도 필요하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
  4) 한 사람 말이 완전히 끝난 다음 의견을 말할 것
- 진행자 소개 및 역할
  1) 진행자 소개 및 역할
  2)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 토의가 주제에 벗어나거나,
  - 어느 한 분이 토의를 주도 하게 될 경우,
  제가 개입하여 조정하더라도 양해하여 줄 것.

○ 참석자 자기 소개 및 분위기(Rapport) 형성

- 참석자 소개 : 간단히 연령, 직업, 거주지, 가족 관계, 요즘 관심사 등
- 분위기 형성을 위한 최근 이슈 이야기

II. 본 단계(Main Stage)

1. 인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 (25분)

1. 최근 인천 지역 분위기 및 관심/이슈 사항 (5분)

○ **인천 지역의 전반적 분위기**

- 인천 지역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분위기 => 가장 큰 이슈
- 긍정적인 분위기 / 부정적인 분위기

○ **인천 지역 분야별 주요 관심사항 및 현황 평가**

- 경제/재정/문화관광 등 (경제)산업분야
-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 도시계획/건설교통/환경 등 인프라 분야

2. 현 인천 시정 방향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전반 평가 (5분)

○ **현 인천 시정 방향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기억나는 현 인천 시정 방향 및 발전 정책이 있다면?
- 분야별 기억나는 시정 방향 및 성과 평가
  (산업분야, 복지/일자리/교육분야, 인프라 분야)

3. 주요 인천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0분)

☞ [인천시 전체 시정 방향 및 정책] 설명 자료 제시

[인천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현재 인천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 왔음.

[인천인구 300만 돌파]
1) 서울, 부산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이자, 사실상 마지막 300만 대도시가 될 것임.
2) 최근 5년간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인천만 인구가 증가함
3)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 민생주권, 교통주권, 문화주권, 환경주권, 해양주권 등 인천 주권을 선포

[인천의 가치 재창조]
1) 구명칭 변경
2) 문학산 개방 사업
3) 애인(愛仁)페스티벌

[재정건전화]
1) 2018년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을 위해 국비 확보, 세출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안사업 해결]
1) 인천발 KTX, GTX 추진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전면 개편
3) 10년만에 루원(Lu1 City) 단지조성공사 착공

[모두가 행복한 도시]
1) 맞춤형 고용·복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천형 어린이집 최초 신설
2) 세계 최대 도시·국가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결과'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천이 선정

[원도심 개발]
1) 개항장 일대(월미도, 인천역, 내항, 개항장 및 동인천역 일원)를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된 도시로 재탄생
2) 청천2구역 재개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중

[관광자원 개발]
1) 권역별 섬 특화 및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2)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 및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육성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도시

[서민경제 활성화]
1)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청년취업 지원 정책 추진
2)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확대 등 매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1)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 구축, 바이오 산업, 뷰티도시 조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소통하는 인천]
1) 민-관 거버넌스 구축, 애인(愛仁)토론회 개최
2) 인천시장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1) 전체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전체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 인천 지역 '주권 회복' 관점에서 중요한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3) 전체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전반적인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각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전체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진행시 시정 방향/정책의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2. 인천시 시정 세부 분야별 인식 및 평가 (80분)

[경제 산업 분야 (20분)]

1. 최근 인천시의 [경제 산업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경제 산업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경제 산업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경제 산업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경제 산업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경제 산업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경제 산업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1
현재 인천시는 **[경제 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 '공공기관 통폐합'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투자유치: 송도 바이오단지, 현대아울렛 등과 같은 복합쇼핑몰 개장,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개장 등을 통해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공공기관 통폐합 :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통합해 인천관광공사로 흡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 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출범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인천 지역 '주권 회복' 관점에서 중요성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재정 산업 분야 (20분)]

1. 최근 인천시의 [재정 산업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재정 산업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재정 산업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인천시 [재정 산업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재정 산업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재정 산업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재정 산업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2
현재 인천시는 **[재정 산업 분야]**에서 '부채감축'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부채감축 : 2018년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을 위해 국비 확보, 세출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부채 13조원에서 11조원대로 약 2조원 감축, 2018년 채무비율 37%→25%미만 전환, 총부채 13조원→8조원대로 감축)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인천 지역 '주권 회복' 관점에서 중요성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20분)]

1. 최근 인천시의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3
현재 인천시는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에서 '대형국제스포츠 유치', '문화가 숨쉬는 도시 조성 사업'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대형국제스포츠 유치 : 인천아시안게임, U-20월드컵,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등 대형국제스포츠 인천 유치 2) 문화가 숨쉬는 도시 조성 사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아트플랫폼, 해양박물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을 결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3)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접근성, 정주여건, 주민소득, 관광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중·단기 계획 수립 및 추진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인천 지역 '주권 회복' 관점에서 중요성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공통 :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20분)]

1. 최근 인천시의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4(공통)
현재 인천시는 **[행정관리/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 구명칭 변경 사업 : 인천 '서구'의 이름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명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구명칭을 정비·변경하고 있음 2) 문학산 개방 사업 : 군사적 요충지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문학산 정상을 개방함 3) 애인(愛仁)페스티벌 : 인천시 인구 300만명 돌파를 기념으로 인천시, 군, 구에서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행사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체계화하여 인천의 상징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III. 종결 단계(End-of-Session) (5분)

☞ 추가 질문을 위한 잠시 양해 말씀

❍ 인천시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핵심실천과제로 민생주권, 교통주권, 문화주권, 환경주권, 해양주권 등 인천주권을 선포하였음. 이 인천주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인천시 발전을 위해 시정 운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감사의 말씀

참고자료 1. 경제 산업 분야

1. 투자 유치 관련

○ 인천 송도가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지로 거듭날 예정임. 세계적 제약회사(J&J, Biogen Idec, Roche, Merck 등)와의 투자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의 공정 개발, 생산·연구 관련 교육센터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예정임.

○ 국내 첫 '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하였음. 규모는 축구장 7배에 이르며 지하3층부터 지상3층에 이르는 300여개의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가 사치품 브랜드에서부터 인지도가 높은 대중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하여 있음.

○ 호텔, 리조트, 카지노 쇼핑시설,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된 파라다이스시티가 2017년 4월 개장하였음. 2017년에는 호텔, 컨벤션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오픈하였으며, 2018년에는 부띠크호텔, 스파, 플라자 시설, 2019년에는 한류테마파크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컬쳐 마켓 등이 오픈할 예정임. 파라다이스시티를 통해 향후 50년간 고용창출 78만명, 생산유별효과 8조 2천억원, 부가가치창출 3조 2,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공공기관 통폐합

○ 인천시는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많은 39개의 출자출연기관을 보유 중이었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낭비, 기관간의 갈등, 정책의 비일관성, 정책고객의 비용증가와 편의 감소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왔음. 이러한 이유로 인천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재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천시 산하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관광분야에서는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통합해 인천관광공사로 흡수·통합하였음.

○ 경제분야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출범하였음. 통합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및 보육, 기술개발, 마케팅, 기반조성, 교육훈련, 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 가능함.

참고자료 2. 재정 산업 분야

1. 부채감축

○ 인천시는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주의”단계로 통보받음. 게다가 국제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시책 등으로 인한 신규 재정 부담이 가중됨.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준공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됨에 따라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2018년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을 위해 국비 확보, 세출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2014년 부채 13조 1,685억원 → 2016년 부채 11조 1,158억원으로 총 부채 2조 527억원 감축 달성(인천시 본청 9,311억원 감축, 인천공사공단 1조 1,216억원 감축)
- 재정건전화 3개년 실천지표로 2018년에는 채무비율 37% → 25%미만 전환, 총 부채 13조원→8조원대로 감축
- 채무 조기상환에 따른 채무규모 대폭 축소(채무비율 2015년 1/4분기 39.9% → 2016년 30.3%)

○ 지속적인 정부지원금 확보 노력과 세입확충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7년엔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2조 9,412억원을 확보함(2014년 대비 30.4% 증가, 국고보조금 2,485억원, 보통교부세 4,727억원)
- 주요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송도 8공구 등 매각수입 5,430억원, 북한 상업·준공업 용지 등 475억원 확보
- 도시공사 토지리폼 등을 통한 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으로 부채절감(2014년 대비 부채 1조 330억원 감축)

참고자료 3. 문화관광체육 분야

1. 대형국제스포츠 유치

○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었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아시안 게임이었음. 3만여 명이 참여하고 북한 등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국 전체가 참가한 '퍼펙트대회'로 풍성한 기록들과 함께 치러졌음. 특히 2조원을 들여 1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등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평가되고 있음.

○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가지 FIFA U-20월드컵 대회가 인천을 포함한 6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임. 인천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최신 스포츠 인프라가 확보된 데다 숭의축구전용경기장을 갖추고 있어 경기가 개최되는 6개 도시 중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받고 있음.

○ 월드컵에 버금가는 스포츠행사인 2015 프레지던츠컵(The Presidents Cup 2015)가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되었음. 프레지던츠컵은 미국과 미국·유럽을 제외한 세계연합팀간의 대결로 '골프월드컵'으로 불리며 227개 국가 및 지역에서 10억명이 넘는 가구에 30개의 언어로 중계될 만큼 규모가 큰 경기를 아시아에서 인천이 최초로 개최되었음.

2. 문화가 숨쉬는 도시 조성 사업

○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곳도 없었던 인천에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0년 개관할 예정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유치로 인천은 세계 주요 문자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수집, 관리, 교육, 연구의 거점이 될 예정이며, 지역내 고용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임.

○ 인천 중구 송월동에 위치한 동화마을은 구한말 인천항 개항 후,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부촌을 형성했다가 수십 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활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음. 그러나 2013년부터 열악해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담장과 벽에 세계 명작동화를 테마로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금의 동화마을이 탄생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개항장 일대(월미도, 인천역, 내항, 개항장 및 동인천역 일대)를 해양·문화·관광

이 융합된 도시로 재탄생시킬 예정임. 현재 '아트플랫폼'을 질적·양적 확대하여 '쇼핑플랫폼', '푸드플랫폼' 구간을 잇는 「복합문화벨트」가 조성될 예정임. 주요시설로는 시립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 예술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임.

○ 인천 월미도(이민사박물관 앞)에 해양민속 연구센터, 해양환경 생물체험관, 항만-물류역사 박물관, 영흥도선실 등의 시설을 갖춘 해양박물관을 건립함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울, 경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임.

3.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접근성, 정주여건, 주민소득, 관광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27개 과제(47개 사업)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 및 추진중

- 접근성 개선: 백령발 아침운행 여객선 재개, 잠진~무의·강화~석모 연도교 건설 등
- 정주여건 개선: 매력 있는 섬 만들기 특성화 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등
- 주민소득 개선: 로컬푸드 개발, 어촌망르 소득기반 조성 등
- 관광여건 개선: 삼산 온천체험시설 개장, 섬 관광 콘텐츠 개발(관광공사) 등

참고자료 4. 행정관리 분야: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1. 구(區)명칭 변경 사업

○ 현재의 방위개념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지리적 혼란 해소 및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명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 역사·문화적 의미가 담긴 명칭으로 정비·변경하고 있음

○ 남구의 경우 '문학구', '제물포구', '수봉구', '미추홀구', '주안구' 등 5개의 명칭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미추홀구'로 선정 예정임.

○ 구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자긍심과 통합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문학산 개방 사업

○ 문학산 일대는 기원전 18년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개국한 곳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곳이며, 백제 초기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1호인 문학산성이 자리 잡고 있음. 하지만 문학산은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시민 접근이 통제되어 왔음.

○ 인천 역사의 발상지인 문학산의 정상을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한다는 구상 아래 문학산 정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2015년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문학산 정상의 절반을 시민에게 개방함. 북동쪽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전망대와 망원경을 설치하여 인천 전경을 조망할 수 있게 됨. 단,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로 한정

3. 애인(愛仁)페스티벌

○ 인천시 인구 300만명 돌파를 기념으로 인천시, 군, 구에서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인천의 행사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체계화하여 인천의 상징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2016년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되었음.

○ 주요 행사로는 인천한류관광콘서트2016,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인천 개항장 컬쳐나잇 뿐만 아니라 연계행사, 지원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음.

시정 모니터링 좌담회 GUIDELINE

[2차 :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2017년 7월

현대리서치연구소

FGI 진행 GUIDELINE

I. 도입 단계(Warming-up Stage) (5분)

☞ 좌석 표에 따라 자리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방 및 핸드폰, 책상 위, 의자 정리에 대해 부탁합니다.

○ 참석에 따른 감사의 말씀, 회사 소개

○ 좌담회 개최의 취지 및 목적 소개, 진행자 소개

- 주제 소개 :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당부 사항 : 1) 개인 신상 및 인적 사항 비밀 보장되므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씀해 주실 것
  2)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본인 자신의 상황과 의견으로 말씀해 주실 것
  3) 정답/오답 없고, 분위기와 정반대 이야기도 필요하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
  4) 한 사람 말이 완전히 끝난 다음 의견을 말할 것
- 진행자 소개 및 역할
  1) 진행자 소개 및 역할
  2)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 토의가 주제에 벗어나거나,
     - 어느 한 분이 토의를 주도 하게 될 경우,
     제가 개입하여 조정하더라도 양해하여 줄 것.

○ 참석자 자기 소개 및 분위기(Rapport) 형성

- 참석자 소개 : 간단히 연령, 직업, 거주지, 가족 관계, 요즘 관심사 등
- 분위기 형성을 위한 최근 이슈 이야기

II. 본 단계(Main Stage)

1. 인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0분)

1. 최근 인천 지역 분위기 및 관심/이슈 사항 (5분)

○ **인천 지역의 전반적 분위기**

- 인천 지역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분위기 => 가장 큰 이슈
- 긍정적인 분위기 / 부정적인 분위기

○ **인천 지역 분야별 주요 관심사항 및 현황 평가**

- 경제/재정/문화관광 등 (경제)산업분야
-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 도시계획/건설교통/환경 등 인프라 분야

2. 주요 인천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 (5분)

☞ [인천시 전체 시정 방향 및 정책] 설명 자료 제시

[인천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현재 인천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 왔음.

[인천인구 300만 돌파]
1) 서울, 부산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이자, 사실상 마지막 300만 대도시가 될 것임.
2) 최근 5년간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인천만 인구가 증가함
3)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 민생주권, 교통주권, 문화주권, 환경주권, 해양주권 등 인천 주권을 선포

[인천의 가치 재창조]
1) 구명칭 변경
2) 문학산 개방 사업
3) 애인(愛仁)페스티벌

[재정건전화]
1) 2018년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을 위해 국비 확보, 세출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안사업 해결]
1) 인천발 KTX, GTX 추진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전면 개편
3) 10년만에 루원(Lu1 City) 단지조성공사 착공

[모두가 행복한 도시]
1) 맞춤형 고용·복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천형 어린이집 최초 신설
2) 세계 최대 도시·국가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결과'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천이 선정

[원도심 개발]
1) 개항장 일대(월미도, 인천역, 내항, 개항장 및 동인천역 일원)를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된 도시로 재탄생
2) 청천2구역 재개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중

[관광자원 개발]
1) 권역별 섬 특화 및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2)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 및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육성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도시

[서민경제 활성화]
1)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청년취업 지원 정책 추진
2)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확대 등 매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1)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 구축, 바이오 산업, 뷰티도시 조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소통하는 인천]
1) 민-관 거버넌스 구축, 애인(愛仁)토론회 개최
2) 인천시장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1) 전체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전체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 인천 지역 '주권 회복' 관점에서 중요한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3) 전체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전반적인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각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3) 전체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진행시 시정 방향/정책의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2. 인천시 시정 세부 분야별 인식 및 평가 (100분)

[보건복지 분야 (25분)]

1. 최근 인천시의 [보건복지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보건복지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보건복지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보건복지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보건복지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1
현재 인천시는 **[복건복지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인천형 공감복지 탄생', '응급의료체계 구축', '장애에 편견이 없는 인천'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대상 확대, 희망키움통장 2) 인천형 공감복지 탄생 : 사랑家꿈,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3) 응급의료체계 구축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인천보훈병원 건립예정,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구급대응체계 강화 4) 장애에 편견이 없는 인천 : 인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소, 장애인 지원 인프라 강화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야 하는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 향후, 분야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25분)]

1. 최근 인천시의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3
현재 인천시는 **[경제산업(일자리)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여성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좋은 일자리 확대 : 경제·일자리 주요지표 전국 최고, 고용노동부 5년 연속 '일자리 우수기관'선정,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자리 희망버스' 개통, 2)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청년사회진출사업 3)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사업, 전국 최초·최고·유일 4)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야 하는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 향후, 분야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교육 사업 (25분)]

1. 최근 인천시의 [교육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교육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교육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교육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교육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교육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교육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4(공통)
현재 인천시는 **[교육 분야]**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교육인프라 확충'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전면적 확대·실시(135개교 80,588명 수혜, 예산액 342억원) 2)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이라는 비전하에 5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수립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야 하는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 향후, 분야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25분)]

1. 최근 인천시의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인천시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2
현재 인천시는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에서 '여성이 행복한 인천', '보육인프라 확대', '출산 친화환경 조성',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여성이 행복한 인천 : 양성평등 실현, 신인(新仁)여성 3,000명 DB구축, 워킹맘·워킹대디가 행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2) 보육인프라 확대 : 인천형 어린이집 최초 신설 및 확대 3) 출산 친화환경 조성 : 임신·출산지원, 영유아 보육의료서비스 지원, 저출산극복네트워크 실시 4)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 : 안심드림마을 조성, 2016년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야 하는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 향후, 분야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III. 종결 단계(End-of-Session) (5분)

☞ 추가 질문을 위한 잠시 양해 말씀

❍ 인천시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핵심실천과제로 민생주권, 교통주권, 문화주권, 환경주권, 해양주권 등 인천주권을 선포하였음. 이 인천주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한편 현재 인천시의 사업 중 ①보건복지 분야, ②여성가족 분야 중 여성 분야, ③여성가족 중 가족·아동 분야, ④경제산업(일자리) 분야, ⑤교육 분야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예산의 우선순위)

❍ 현재 인천시 발전을 위해 시정 운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감사의 말씀

참고자료 1. 보건복지 분야

1.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맞춰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 207명 추가로 배치

○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고 지원한 수가 2014년 72,113명에서 2016년 101,39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시적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지원도 2014년 6,219명에서 2016년 19,327명으로 크게 증가함

○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프로그램 신설.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본인의 저축액에 더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임

2. 인천형 공감복지 탄생

○ 사랑家꿈 사업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민·기업·자원봉사자 등 범시민적 참여속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사랑家꿈 사업을 통해 2015년, 2016년 2,187가구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생활필수물품 지원, 생활수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중

○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 기초연금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노인 장기요양 지원, 사랑의 안심폰 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지원 등
-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3년 연속 대상 수상

3. 응급의료체계 구축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1개소(길병원)→2개소(길병원·인하대학교병원)로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중에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등 법률에 정해진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혹은 생활권 할당 개념을 기반으로 지정함. 진료 이외에도 해당 권역 내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업무도 담당함.

○ 인천지역 거점병원으로 보훈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인천보훈병원 건립 예정(2015년 9월 기공, 2018년 개원 예정).

- 위치: 인천시 남구 용현동 450-5 일원(지하1층, 지상7층, 130병동)

○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구급차량 1대당 구급대원 3인 탑승체계 확대,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구급대응체계를 강화하였음.(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구급서비스 분야 전국 1위)

4. 장애에 편견이 없는 인천

○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과 자립 생활 등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지원 확대: 노틀담복지관 자세유지기구 센터에서 사업 진행
- 재가 장애인 행복 프로젝트 '두루美사업': 재가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밑반찬, 생필품, 가사서비스 지원, 건강증진사업, 주거환경갱선사업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대·운영: 중증장애인 신체기능 향상과 각종 문화·예술·스포츠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2016년부터 장애인 및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 도모

○ 2016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인천교직원공제회관 7층에 인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개소하였음. 발달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후견인 지원과 권익옹호 사업 추진

○ 인천지역 최초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2017년 6월 준공-선학경기장 부지 內)

○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건립

참고자료 2.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1. 좋은 일자리 확대

○ 2015년 대비 2016년 수출액 증가(2015년: 312억달러→2016년: 358억달러), 전국 유일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인천시: 14.8%), GRDP증가율(%) 전국 최고(인천시: 9.6%), 주요 일자리 지표 전국 최고(경제활동 참가율 64.8%, 고용률 61.6%)

○ 민선 6기 지난 3년간 일자리 지표(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가 7대 특·광역시 중 1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의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다음 해 추진한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부가 주관하는 최고의 평가인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2014년, 2015년 연속 우수단체 수상

○ 기업들과 취업준비생을 연결해 주는 '일자리 희망버스'개통(2016년 8월 25일), 희망버스에는 상담실과 취업자료 등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상담사 3명과 행정인력 2명 등 5명이 탑승하여 일자리에 관한 모든 정보와 취업알선을 지원함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산재해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용·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2016년 7월) 인천 고용센터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인천시 전체를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취업 지원, 취업 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복지급여 상담, 민간복지 연계 등 다양한 복지·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전국 최초로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간 협업을 통한 '청·사·진(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미취업 청년 7천명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 지원

- 자격증 접수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등 구직활동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60만원 지원

○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허브'로서 우리나라 교육혁신과 경제, 산업, 문화, 예

술 등 각 분야를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Incheon Global Campus)내에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 창업공간(BI실, Post BI실), 시제품 제작소, 아이디어 살롱, 디자인랩, 워크스테이션, 휴게공간 등이 구축될 예정. 2년간 39억원 국비 확보

3.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매년 확대하고 있음. 환경지킴이사업 등 일반적인 공익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천시만의 특색사업을 발굴 추진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음. 특히 실버카페에서 활동하길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매장을 확대하고 있음(현재 실버카페 20개소를 개점, 어르신 바리스타 230명이 활동중)

- 실버카페: 20개소 231명
- 인천실버종합물류(주)설립: 실버택배 활성화를 위해 민·관 등 3개 기관(인천시, CJ대한통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스토어, 카페지브라운 송림체육관점, 강화복지관점, 용현점 개소
- 어르신 아동지킴이 '아이맘 사랑사업' 확대운영: 수혜자 5,686명

○ 보건복지부 평가 '공익형 일자리 사업' 3년 연속 대상&'시장형 일자리 사업'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4. 여성일자리 창출

○ 2015년부터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인천지역 내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와 연계하여 새일센터의 역량제고, 인천 여성 취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구인처 발굴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 창조혁신센터와 창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

○ 타시도와는 차별적으로 석·박사 연구원 2명으로 상시인력으로 채용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맞춤형 여성 일자리 개발·보급 및 지역새일센터 지원 컨설팅 업무 수행

참고자료 3. 교육 분야

1.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2017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함

○ 수혜대상: 135개교 80,588명, 예산액 342억원

2.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

○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이라는 비전하에 5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수립

1)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 학생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초·중·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지원(103개교 107개 사업),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지원(초등학교 248개교, 496명)
-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지원(영재교육원 11기관, 지역공동영재학습 22기관),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강화, 주민개방 학교시설 건립 지원

2)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인천형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지역인재 고용의 선순환 구조 조성)
- 글로컬(Global+Local) 인재 육성: 인천형 인재육성 산학관 협의체 구성 운영, 인천 글로벌리더십 스쿨 확대 운영
- 지역맞춤형 고등교육기관 설립(유치): 뉴욕주립대학교 산하 예술·디자인·비즈니스·기술 분야의 전문학교 FIT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유치, 문화예술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인천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인천 유치 추진

3)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 평생교육 추진기반 활성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천 전역의 평생학습도시화

추진

- 학습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습자별(新중년·직장인·장애인·일반시민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진흥원 내 전담기구 설치
- 평생교육진흥원 역량 강화: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 인천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인재양성

- 인천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정체성 교육: 초·중·고 인천 역사문화 탐방 및 교육 실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수요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지원, 미래사회에 대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스포츠 인재양성: 인천 프로구단 연계 우수 유망주 육성, 소외계층 자녀 스포츠활동 지원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지원: 장학기금 500억원 확충, 2017년 장학생 선발(1,025명-1,105백만원)

5) 제도개선 건의

- 교육부 학교신설 억제정책 개선: 도시개발 수요가 많고 인구증가가 지속되는 인천에 학교신설 억제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억제정책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함
-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규정 개선: 2014년 세입예산과목 체계 개편으로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인근 교육경비 보조 지역과의 교육형평성 문제 제기

참고자료 4.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1. 여성이 행복한 인천

○ 전국 최초로 「인천 여성전문인력 등록」(인천시 홈페이지-여성-여성전문인력 등록)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여성인재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기틀 마련 및 릴레이 재능나눔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인천여성전문인력 신인(新仁)여성(인천시에 거주 또는 직장이 있거나 고향, 학교, 사업 등 관계에 따라 인천에 연고나 기여가 있는 전문직 여성 인재) 3,000명 DB구축 발굴프로젝트로 여성전문인력 신규 발굴 및 여성의 시정공감 및 주요정책 참여 확대(여성위원 수 증가)

○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구성

- 가족친화 인증준비기업군 지정 103개소

- 가족친화국가인증 목표 2016년 66개소→2017년 96개소→2018년 125개소

2. 보육인프라 확대

○ 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2014년 211개소이던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에는 329개소로 확충

○ 2016년 8월 첫 선을 보인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1명당 어린이 2~4명 정도만 돌보는 방식으로 2016년 10개소 시범 운영, 2017년 50개소, 2018년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

※인천형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0세반 1:3→1:2로, 1세반은 1:5→1:4)을 낮춘 영아 안심 보육을 특화한 인천시의 어린이집

- 공보육 서비스 공급률: 2016년 329개소(14.7%)→2020년 635개소(28.3%)확대

- 공보육 분담률: 2016년 18,548명(23.8%)→2020년 29,772명(38.3%)확대

3. 출산 친화환경 조성

○ 임신·출산지원: 임산부 건강관리(17,039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3,753건)

○ 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미숙아의료·난청진단 등 24,106명

○ 인천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사업: 인식개선캠페인 등 14회

4.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인천 구축

○ 2016년 아동·여성간전지역연대 운영평가 최우수상, 안심드림 마을 조성사업 우수상 수상(2016년 12월)

○ 폭력예방 안심드림(Dream)조성사업

-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확대(25개소), 폭력예방 안전 멘토-멘티 결연(114명), 초등학생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초등5학년생 25,000명), 24시 데이트 폭력 상담콜 운영(1366센터), 안전취약 마을 환경 개선(2개소 23가구)

○ 아동학대 안심드림(Dream)조성사업

- 우리마을 아동지킴이(읍·면·동 통장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 위촉 및 운영-3,829여명), 2018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3개소→4개소),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통합지원체제 구축(교육청·법원 등 20개 기관 참여),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개원

시정 모니터링 좌담회 GUIDELINE

[3차 : 인프라 분야]

2017년 8월

현대리서치연구소

FGI 진행 GUIDELINE

I. 도입 단계(Warming-up Stage) (5분)

☞ 좌석 표에 따라 자리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방 및 핸드폰, 책상 위, 의자 정리에 대해 부탁합니다.

○ 참석에 따른 감사의 말씀, 회사 소개

○ 좌담회 개최의 취지 및 목적 소개, 진행자 소개

- 주제 소개 :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당부 사항 : 1) 개인 신상 및 인적 사항 비밀 보장되므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씀해 주실 것
  2)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본인 자신의 상황과 의견으로 말씀해 주실 것
  3) 정답/오답 없고, 분위기와 정반대 이야기도 필요하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
  4) 한 사람 말이 완전히 끝난 다음 의견을 말할 것
- 진행자 소개 및 역할
  1) 진행자 소개 및 역할
  2)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 토의가 주제에 벗어나거나,
     - 어느 한 분이 토의를 주도 하게 될 경우,
       제가 개입하여 조정하더라도 양해하여 줄 것.

○ 참석자 자기 소개 및 분위기(Rapport) 형성

- 참석자 소개 : 간단히 연령, 직업, 거주지, 가족 관계, 요즘 관심사 등
- 분위기 형성을 위한 최근 이슈 이야기

II. 본 단계(Main Stage)

1. 인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0분)

1. 최근 인천 지역 분위기 및 관심/이슈 사항 (5분)

○ **인천 지역의 전반적 분위기**

- 인천 지역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분위기 => 가장 큰 이슈
- 긍정적인 분위기 / 부정적인 분위기

○ **인천 지역 분야별 주요 관심사항 및 현황 평가**

- 경제/재정/문화관광 등 (경제)산업분야
-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 도시계획/건설교통/환경 등 인프라 분야

2. 주요 인천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 (5분)

☞ [인천시 전체 시정 방향 및 정책] 설명 자료 제시

[인천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현재 인천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 왔음.

[인천인구 300만 돌파]
1) 서울, 부산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도시이자, 사실상 마지막 300만 대도시가 될 것임.
2) 최근 5년간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인천만 인구가 증가함
3)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 민생주권, 교통주권, 문화주권, 환경주권, 해양주권 등 인천주권을 선포

[인천의 가치 재창조]
1) 구명칭 변경
2) 문학산 개방 사업
3) 애인(愛仁)페스티벌

[재정건전화]
1) 2018년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을 위해 국비 확보, 세출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안사업 해결]
1) 인천발 KTX, GTX 추진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전면 개편
3) 10년만에 루원(Lu1 City) 단지조성공사 착공

[모두가 행복한 도시]
1) 맞춤형 고용·복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천형 어린이집 최초 신설
2) 세계 최대 도시·국가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결과'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천이 선정

[원도심 개발]
1) 개항장 일대(월미도, 인천역, 내항, 개항장 및 동인천역 일원)를 해양·문화·관광이 융합된 도시로 재탄생
2) 청천2구역 재개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중

[관광자원 개발]
1) 권역별 섬 특화 및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2)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 및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육성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도시

[서민경제 활성화]
1) 전국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청년취업 지원 정책 추진
2)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확대 등 매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1)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 구축, 바이오 산업, 뷰티도시 조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소통하는 인천]
1) 민-관 거버넌스 구축, 애인(愛仁)토론회 개최
2) 인천시장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1) 전체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전체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 인천 지역 '주권 회복' 관점에서 중요한 시정 방향/정책은? => 이유

3) 전체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전반적인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각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전체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진행시 시정 방향/정책의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2. 인천시 시정 세부 분야별 인식 및 평가 (100분)

[건설교통 분야 (25분)]

1. 최근 인천시의 [건설교통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건설교통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건설교통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건설교통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건설교통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건설교통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건설교통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1
현재 인천시는 **[건설교통 분야]**에서 '철도연장', '버스노선 전면개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철도 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인천발KTX, GTX,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동서간선철도 2) 버스노선 전면개편: 인천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과 연계 3)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경인고속도로 주변 역세권 등 주요 거점 9곳을 성장거점으로 개발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야 하는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 향후, 분야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아이디어차원에서 예: 자전거도로 확대, 보행자친화도로 확대 등)

[도시계획 분야 (25분)]

1. 최근 인천시의 [도시계획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도시계획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도시계획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도시계획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도시계획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2
현재 인천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원도심 부활',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원도심 부활: 개항장 일대, 인천 내항, 원도심 등 원도심(구도심) 살리기, 뉴스테이를 통한 돌파구 마련 2) 도시재생 공모사업: 강화읍 도시재생 사업, 수도권 역세권 주변 도시재생사업,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인천항, 부평역 주변 강화군청 등 총 2,000억원 투입예정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야 하는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 향후, 분야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환경녹지 분야 (25분)]

1. 최근 인천시의 [환경녹지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환경녹지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환경녹지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인천시 [환경녹지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환경녹지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환경녹지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환경녹지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3
현재 인천시는 **[환경녹지 분야]**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1인당 공원면적 전국2위', '인천 녹색종주길 완성', '글로벌 녹색도시로 성장',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및 옛 물길 복원'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로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 2) 1인당 공원면적 전국 2위: 시민 1인당 공원면적 10.96㎡로 전국2위 3) 인천 녹색종주길 완성: 10개 노선 60km, 관내 산 15개소와 하천2개소, 공원 8개소 연결,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3,000만 나무심기 운동 4) 글로벌 녹색도시로 성장: 유엔 녹색기후기금 GCF유치 및 조성 본격화,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친환경 부문 2년 연속 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국1위', 온실가스 감축 원년 선포 '전국 최초' 5)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및 옛 물길 복원: 국토교통부로부터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복개되어 사라진 굴포천 복원 예정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야 하는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 향후, 분야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재난안전(소방) 분야 (25분)]

1. 최근 인천시의 [재난안전(소방) 분야] 관심/이슈 사항

○ 인천시의 [재난안전(소방) 분야] 주요 이슈 사항 및 긍정/부정적인 분위기

2. 현재 인천시의 [재난안전(소방) 분야] 시정 방향/정책 인지 정도

○ 알고 있는 [재난안전(소방) 분야] 시정 방향/정책이 있다면?

○ 각 시정의 성과와 긍정/부정 점이 있다면?

3. 주요 인천시의 [재난안전(소방) 분야] 시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재난안전(소방) 분야] 시정 설명 자료 제시

현재 인천시 [재난안전(소방) 분야] 시정 방향 및 정책-참고4
현재 인천시는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 역량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확대', '소방서비스 강화', '해경부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과 같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 현장중심의 재난·안전 역량강화: 전국 최초 재난·안전예보·경보 일원화 시스템 구축 2) 범죄예방을 위한 CCTV확대: 시민안전과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CCTV확대 3) 소방서비스 강화: 소방력의 지속적인 확충,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구급대응체계 강화,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출동 길안내 서비스 4) 해경부활: 해체된 해양경찰청(해경) 3년 만에 부활.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해상재난에 대한 대응 강화 기대 5)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세계최대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Numbeo평가 1위

1) 분야별 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 있었던 시정 방향/정책은?
- 각각의 시정 방향/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2)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의 가치 및 필요성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시정별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정도는 어떠한가? => 이유
-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야 하는지? => 이유

3) 분야별 시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분야별 시정 방향/정책 진행의 긍정.부정 평가 => 이유
- 현 시점에서 분야별 성과 및 미비점은?

4) 분야별 시정의 향후 개선 방향

- 향후, 좀 더 주력/노력해야 하는 시정 방향/정책은?
- 향후, 분야별 시정 진행시 개선 사항이나 주의점이 있다면?
- 향후, 분야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III. 종결 단계(End-of-Session) (5분)

☞ 추가 질문을 위한 잠시 양해 말씀

○ 인천시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핵심실천과제로 민생주권, 교통주권, 문화주권, 환경주권, 해양주권 등 인천주권을 선포하였음. 이 인천주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인천시 발전을 위해 시정 운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감사의 말씀

참고자료 1. 건설교통 분야

1. 철도 연장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2016. 02. 03.), 수인선(2016. 02. 26.), 영종역(2016. 03. 26.), 인천2호선(2016. 07. 30.) 개통을 시작으로 인천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광명연장, 청학역 신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용유동 관광단지(6.1km, 6개 정거장)노선이 2016. 02. 03.개통하였음.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 첫 자기부상철도임
- 수인선 송도~인천구간 개통: 수인선 송도~인천(7.3km)구간이 개통(2016. 12.)되면서 인천철도1호선, 경인선과 연결됨.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기존 자가용 이용시간 대비 통행시간이 20분 단축됨.
-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2016년 3월 26일 영종역이 개통하여 영종하늘도시, 운북·운남·중산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개선되었고, 기존 운서역을 이용하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영종역 이용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7년 2개월만에 서구와 남동구를 잇는 도시철도가 개통됨(2016. 07. 30.) 총연장 29.2km, 정거장 27곳, 사업비 2조 2,582억원이 투입되었음. 개통 6개월만에 누적 승객 2천만명 돌파
- 인천발 KTX: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인천에서 인천발 KTX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2021년 인천발 KTX가 완공되면 부산까지 2시간대, 대구·광주는 1시간대에 갈 수 있게 됨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로 인천~서울간 통행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될 것임.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노선 재기획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동서간선철도: 인천과 강릉, 서해와 동해를 바로 연결하는 동서간선철도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개통될 예정임. 2017년 12월 원주와 강릉간 120km가 우선 개통되고, 2023년까지 시흥 월곶~

판교, 여주~원주 구간이 차례로 개통될 예정임

○ “인천중심, 사람중심”의 내부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였음.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은 대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음. 또한 서울 중심으로 철도가 건설되어 인천 내부철도망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음.

○ 이러한 인천시민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2035년까지 7개 노선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음

2. 버스노선 전면개편

○ 과거의 인천 시내버스 노선은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짜져있었음. 이를 인천도시철도1호선, 2호선, 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7호선, 수인선 등 다변화된 철도노선과 연계하여 42년 만에 개편되었음

○ 인천시내버스 노선은 신·원도심 통합 대중교통체계, 버스-철도 복합대중교통체계,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라는 개편전략을 가지고 교통카드, 휴대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을 만들고, 시민·전문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 개편 이후 노선중복도 21%, 굴곡도 10.7%를 개선하여 노선당 운행대수는 0.8대 증가, 평균 배차간격은 1.2분 단축, 이용자 평균 통행시간 9.8분 단축, 통행시간 절감편익 연 378억의 효과를 내고 있음

3.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 온 중추시설이었으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한 극심한 지·정체로 인하여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고, 지역단절·소음·미세먼지의 유발 원인이 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였고,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을 체결하였음(2015. 12. 16.)

○ 이에 따라 인천기점~서인천IC까지 10.45km 구간에 대한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시설물 관리 이관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조율 중에 있음.

○ 경인고속도로 이관이 완료되면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구조개선(진출입로 설치, 방음벽 철거 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2017년부터 일반화사업 전구간의 동시 추진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착공예정임(약 6.2만개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회간 2개 규모 9.6만㎡확충, 공원녹지 16.7만㎡확충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연계하여 문학~검단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시행예정임

참고자료 2. 도시계획 분야

1. 원도심 부활

○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공모 대상지로 선정. 상상플랫폼, 우회고가 정비,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과 같은 선도사업을 통해 33개 사업 간 연계와 민간투자 촉진

- 위치: 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 사업비: 5,998억원
- 규모: 3.9㎢(중구: 3.3㎢, 동구: 0.6㎢)
- 기대효과: 직접고용 45,545명, 간접고용 47,585명 창출, 종합 세수 증대 3,187억원 발생, 직·간접소득 9,494억원 발생, 민간투자 3,154억원 발생

○ 인천내항 공공개발로 전환: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 도시재생지역 내 항만 재개발 사업에 공공개발 방식 적용.

○ 뉴스테이를 통한 돌파구 마련: 개발이 지체되던 원도심지역을 뉴스테이 전국 1호였던 인천 도화구역을 시작으로 청천2, 십정2, 송림초교 주변 등에 도입하여 원도심을 정상화 시키고 있음. 인천시는 현 주민들의 재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논스톱 서비스를 적용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53일로 단축시킴

2. 도시재생공모사업 선정

○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와 주민과의 분쟁으로 인천시 곳곳에 도시정비사업이 멈춰있는 구역이 많았음.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주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임(27개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함-2014년 146개소→2016년 126개소→2017년 119개소)

-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송림 두레하우스 등 6개소

-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8개구 21개사업

○ 강화읍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6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강화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음. 인천시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내 관청리, 신문리, 남단리 일원 1.01㎢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34억원을 투입하여 강화군의 유휴공간 거점화, 강화나들길 마을 가꾸기, 산성안 쉼터 조성, 왕의 길 역사문화가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항, 부평역 주변, 강화군청 주변 등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12곳에 10년동안 국비 630억원, 지방비 1,370억원 등 총 2,000억원 투입. 마을회관, 놀이터, 도서관 등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1) 서구

- 가재울마을 주변(167,000㎡): 생활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
- SK인천석유화확 삼거리 주변(475,000㎡): 민·관 주민 협력형 주거지 재생모델

2) 중구

- 인천개항창조도시(3,868,000㎡): 해양·문화·관광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모델 도시
- 연안부두어시장 주변(699,000㎡): 친수·상업·관광기능 활성화를 통한 워터프론트 재생
- 신흥동 일원(621,000㎡): 수인곡물시장, 폐선로를 활용한 창조적 재생

3) 남구

- 제물포역 주변(905,000㎡): JST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공간 육성

4) 강화군

- 강화군청 주변(1,010,000㎡):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 교동 대룡시장 주변(78,000㎡): 접경지역·도서지역의 특성과 근대문화·예술을 융합한 재생

5) 부평구

- 부평역 일원(1,029,000㎡): 문화·생태·기존상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평구 경제 생태계 구축
- 부평아울렛 주변(174,000㎡): 생활인프라(주차장, 공원)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재생

6) 남동구

- 만부구역 주변(235,000㎡): 저층주거관리사업과 연계한 공동체중심 주거지 재생

참고자료 3. 환경녹지 분야

1.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허가의 권한만 있을 뿐, 매립면허권에 대한 지분이 없어 수도권매립지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2016년 사용 종료를 고수해 왔음

○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로 인해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인천시가 매립지 문제를 주도할 수 있게 됨

1)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
   - 폐기물 반입수수로 50%가산, 지원금 연간 700억원 이상(2016년 783억)
   -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부지매가대금 1,434억 연차적 투자
   -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2015년~2017년, 34개사업, 719억원 투자)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조기 추진

3) 매립지 수영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 조성, 야생화 단지 상시개방 등 주민친화적 매립지 운영

4) 새로운 이미지(세계적 환경관광 명소) 창출,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 미국 뉴저지 트리플파이브그룹 아메리카 드림과 FDI 2억달러 MOU체결
   - 생산유발효과 2조 775억원, 고용유발효과 19,571명, 임금유발효과 4,391억원

5)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한 High Tech환경기업 유치
   - 환경부에서 조성중인 환경산업실증화단지 내 첨단환경기업 100개 유치

6) GCF 권장 사업모델로 개도국에 운영·기술노하우 전파 가능

2. 1인당 공원면적 전국 2위

○ 2014년 1인당 도시공원면적 7.6㎡에서 2016년 1인당 도시공원면적 10.96㎡로 44.2%증가. 전국 특·광역시 중 2위(1위: 울산: 16.82㎡)

3. 인천 녹색종주길 완성

○ 도시개발로 단절되고 조각난 녹지축을 연결하여 '인천 종주길'을 조성할 예정임. 하천, 주택가, 공장, 나대지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녹지·생태공원과 연결육교, 녹도꽃길 등을 조성하여 연결 예정

- 대상: 60km(15개산지+2개하천+8개공원), 사업비: 35,815백만원, 사업기간: 2016년~2025년까지
  계양산~천마산~마월산~소래산~장수천~오봉산~문학산~청량산~해돋이공원~센트럴공원~솔찬공원 등

○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본격 착수

- 지구온난화 대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토대를 마련

4. 글로벌 녹색도시로 성장

○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2016년을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환경오염 방지활동과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 온실가스 감축량 전국 기초 및 광역지자체 243개소 중 1위(환경부 평가결과, 2016년 10월)

- 2014년 17.9% → 2015년 39.6%(21.7%상승) → 2016년 43.5%(3.9%상승)
  2015년 전국 평균(17.5%), 지자체 평균(16.3%)의 2배 이상 성과

5.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및 물길 복원

○ 굴포천은 서부수도권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이나, 하천유역의 40%가 한강수위 이하의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고, 아라천(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하류의 수로 변경으로 수질오염과 악취,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적 정비가 시급했음

○ 인천시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굴포천을 국가 주도하에 정비·관리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을 승인함

○ 굴포천 최상류 구간인 부평공원 인근 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덮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굴포천의 옛물길을 복원할 예정임

- 위치: 부평1동 주민센터~부평구청, 총사업비 636억원 규모: 1.26km, 2018년 공사 착수, 2022년 사업완료 목표

참고자료 4. 재난안전(소방) 분야

1.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역량강화

○ 인천은 역세권의 대규모 지하상가, 항·포구 등이 많아 재난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이러한 4개 지역(부평구-갈산·부평역세권, 남구-석바위·주안 역세권, 강화군-황산도항 외 8개항, 옹진군-선진포항 외 7개항)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 통합대응체제 예보·경보시스템을 도입함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군·구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전송하고 종합상황실에서는 타 관리주체 방재실 및 시청, 소방청,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2. 범죄예방을 위한 CCTV확대

○ 시민안전과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CCTV확대

- 방범용·지능형CCTV: 2014년 2,938대→2015년 3,077대→2016년 3,539대
- 어린이 보호 CCTV 등: 2014년 1,433대→2015년 1,601대→2016년 1,863대
- CCTV통합관제센터: 2014년 4개소→2015년 6개소→2016년 8개소

3. 소방서비스 강화

○ 매년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요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 국제행사의 증가 등 유사시 신속한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음

- 공항소방서 신설(2015. 06. 22.) 인력: 182명, 차량33대
  관할지역: 영종도 일대 및 옹진군 북도면
- 송도소방서 신설(2017. 12. 개설) 부지: 6,600㎡(2,000평) 총사업비 146억원
- 청라119안전센터 신설(2016. 10. 06. 부지: 1,500㎡(455평), 총사업비 38억원
- 무의 119지역대 신설(2017. 07. 개설) 위치: 중구 용유 출장소
-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2018. 06. 개서예정) 부지: 2,294㎡(695평), 총사업비 31억원

○ 소방인력 및 장비확충

- 노후 소방차량 보강 172대(2015년 41대, 2016년 66대, 2017년 65대)
- 소방인력 증원: 2014년 2,255명→2017년 2,617명(362명↑)
- 전통시장 주거시설 기초소방시설 보급 1,443가구(100%보급)
- 소방차량 교체를 통한 노후율 개선 2015년(24%)→2016년(20%)→2017년(8%)

○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구급대응체계 강화

- 구급차량 1대당 구급대원 3인 탑승체계 확립(2015년 18%→2016년 50%→2017년 75%)

○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시스템

- 전년대비 출동시간 20%단축, 정부 3.0우수사례평가-국무총리표창

4. 해양경찰 부활

○ 해양경찰청이 폐지 3년 만에 독립 외청으로 부활하였음

○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수상 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크고 작은 해양사고의 예방, 서해5도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은 필수적임

○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위해 노력중

5.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 세계적인 도시·국가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118개국 342개 도시 가운데 인천이 안전지수 90.89, 범죄지수 9.11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됨. 특히 인천은 '낮과 밤 시간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를 평가한 안전지수에서 낮시간 안전지수 90.38, 밤시간 안전지수 84.62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1위: 인천(대한민국) 2위: 교토(일본), 3위: 서울(대한민국), 4위: 에스키셰히르(터키), 5위: 뮌헨(독일), 6위: 싱가포르(싱가포르), 7위: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8위: 보이시(미국), 9위: 오사카(일본), 10위: 베른(스위스)

인천 시정 모니터링 좌담회
종합 결과 보고서

발 행 처

인천발전연구원

발 행 일

2017. 9.

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